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41339

2011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중도장애학생의 활동보조서비스 현황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아 미

중도장애학생의
활동보조서비스 현황

Present condition about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Students with Severe Disabled.

2011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아 미

중도장애학생의
활동보조서비스 현황

지도교수 김 정 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아 미

김아미의 교육학 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영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유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정연 (인)

201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목차 ····· iii
ABSTRACT ····· vi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3
3. 용어의 정의 ····· 3

Ⅱ. 이론적 배경 ····· 4
1. 중도장애학생 ····· 4
2. 자립생활의 등장 ····· 5
3. 국내의 활동보조서비스 ····· 6
1) 활동보조서비스의 정의 ····· 6
2) 활동보조서비스의 목적 및 특성 ····· 7
3)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 ····· 7
4)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과 선정 ····· 8
5) 활동보조서비스의 관련 법률 ····· 9
4.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변화 과정 ····· 9
5. 선행연구 고찰 ····· 15

Ⅲ. 연구방법 ····· 20
1. 연구대상 ····· 20
2. 연구도구 ····· 22
3. 연구절차 ····· 24
1) 예비조사 ····· 24
2) 본 조사 ····· 24
4. 자료처리 ····· 25

Ⅳ. 연구결과 ····· 26
1. 중도장애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활동보조서비스 수급현황 ····· 26

1) 중도장애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6
2)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 27
3)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계기 ····· 28
4)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과 횟수 및 시간 ····· 29
5)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장소 ····· 30
6)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 31
2.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별 이용현황 ····· 33
1) 신변처리 지원 ····· 33
2) 가사 지원 ····· 37
3) 개인활동 지원 ····· 40
4) 정서 지원 ····· 43
5)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 46
3.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별 만족도 ····· 49
1) 신변처리 지원 ····· 49
2) 가사 지원 ····· 52
3) 개인활동 지원 ····· 55
4) 정서 지원 ····· 58
5)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 60

Ⅴ. 논의 ····· 64
1. 활동보조서비스 수급현황 ····· 64
2.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 66
3.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 ····· 67

Ⅵ. 결론 및 제언 ····· 69
1. 결론 ····· 69
2. 제언 ····· 70

참고문헌 ····· 71
부 록1 ····· 74
부 록2 ····· 80

표 목 차

<표 Ⅱ-1>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패러다임의 비교 ····· 6
<표 Ⅱ-2>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내용 ····· 10
<표 Ⅱ-3> 선행 연구 비교 ····· 15
<표 Ⅲ-1> 연구 참여 학생의 부모에 대한 기초사항 ····· 21
<표 Ⅲ-2> 설문지 구성 ····· 23
<표 Ⅳ-1> 중도장애학생의 특성 ····· 27
<표 Ⅳ-2>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 28
<표 Ⅳ-3>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계기 ····· 28
<표 Ⅳ-4>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 ····· 29
<표 Ⅳ-5>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 ····· 29
<표 Ⅳ-6>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장소 ····· 31
<표 Ⅳ-7> 앞으로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 32
<표 Ⅳ-8> 신변처리 지원 현황 ····· 33
<표 Ⅳ-9> 성별 신변처리 지원 현황 ····· 34
<표 Ⅳ-10> 학년별 신변처리 지원 현황 ····· 35
<표 Ⅳ-11> 장애유형별 신변처리 지원 현황 ····· 36
<표 Ⅳ-12> 통합여부별 신변처리 지원 현황 ····· 36
<표 Ⅳ-13> 가사 지원 현황 ····· 37
<표 Ⅳ-14> 성별 가사 지원 현황 ····· 37
<표 Ⅳ-15> 학년별 가사 지원 현황 ····· 38
<표 Ⅳ-16> 장애유형별 가사 지원 현황 ····· 39
<표 Ⅳ-17> 통합여부별 가사 지원 현황 ····· 39
<표 Ⅳ-18> 개인활동 지원 현황 ····· 40
<표 Ⅳ-19> 성별 개인활동 지원 현황 ····· 41
<표 Ⅳ-20> 학년별 개인활동 지원 현황 ····· 41

<표 Ⅳ-21> 장애유형별 개인활동 지원 현황 ····· 42
<표 Ⅳ-22> 통합여부별 개인활동 지원 현황 ····· 43
<표 Ⅳ-23> 정서 지원 현황 ····· 43
<표 Ⅳ-24> 성별 정서 지원 현황 ····· 44
<표 Ⅳ-25> 학년별 정서 지원 현황 ····· 44
<표 Ⅳ-26> 장애유형별 정서 지원 현황 ····· 45
<표 Ⅳ-27> 통합여부별 정서 지원 현황 ····· 46
<표 Ⅳ-28>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현황 ····· 46
<표 Ⅳ-29> 성별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현황 ····· 47
<표 Ⅳ-30> 학년별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현황 ····· 47
<표 Ⅳ-31> 장애유형별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현황 ····· 48
<표 Ⅳ-32> 통합여부별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현황 ····· 48
<표 Ⅳ-33>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 ····· 49
<표 Ⅳ-34>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현황 ····· 50
<표 Ⅳ-35> 성별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현황 ····· 50
<표 Ⅳ-36> 학년별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현황 ····· 51
<표 Ⅳ-37> 장애유형별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현황 ····· 51
<표 Ⅳ-38> 통합여부별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현황 ····· 52
<표 Ⅳ-39> 가사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 ····· 52
<표 Ⅳ-40> 가사 지원 만족도 현황 ····· 53
<표 Ⅳ-41> 성별 가사 지원 만족도 현황 ····· 53
<표 Ⅳ-42> 학년별 가사 지원 만족도 현황 ····· 54
<표 Ⅳ-43> 장애유형별 가사 지원 만족도 현황 ····· 54
<표 Ⅳ-44> 통합여부별 가사 지원 만족도 현황 ····· 55
<표 Ⅳ-45>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 ····· 55
<표 Ⅳ-46>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현황 ····· 56
<표 Ⅳ-47> 성별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현황 ····· 56

<표 Ⅳ-48> 학년별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현황 ····· 57
<표 Ⅳ-49> 장애유형별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현황 ····· 57
<표 Ⅳ-50> 통합여부별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현황 ····· 58
<표 Ⅳ-51> 정서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 ····· 58
<표 Ⅳ-52> 정서 지원 만족도 현황 ····· 58
<표 Ⅳ-53> 성별 정서 지원 만족도 현황 ····· 59
<표 Ⅳ-54> 학년별 정서 지원 만족도 현황 ····· 59
<표 Ⅳ-55> 장애유형별 정서 지원 만족도 현황 ····· 60
<표 Ⅳ-56> 통합여부별 정서 지원 만족도 현황 ····· 60
<표 Ⅳ-57>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 ····· 61
<표 Ⅳ-58>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 현황 ····· 61
<표 Ⅳ-59> 성별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 현황 ····· 62
<표 Ⅳ-60> 학년별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 현황 ····· 62
<표 Ⅳ-61> 장애유형별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 현황 ····· 63
<표 Ⅳ-62> 통합여부별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 현황 ····· 63

ABSTRACT

Present condition about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Students with Severe Disabled.

by Kim A-Mi
Advisor : Prof. Jeong-youn Kim, Ph.D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dition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Students with Severe Disabled. This study is performed by investigation research method from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185 Students with Severe Disabled, who got supplemen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rom complex center for the disabled and self-reliance life center for disabled, are participated on survey from June 28, 2010 to August 25, 2010. Total 121 survey papers were used for analysis. Based on authorized work shee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disabled of 2010, investigation method is fixed and compensated with characteristic of investigation object. SPSS 17.0 is used to analyze collected data.

Ratio of male is higher than that of female for gender of participated students with Severe Disabled. Age is distributed from 6 years old to 18 years old, and the average age is 11 years old. Names of diagnosis are investigated in order as brain lesions, intellectual disability, autism, orthopedic disorder, visual impairment, and mental disorder. Averagely, 3 years and 5 months old is the age to get disability diagnosis. Half of the whole a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ter this researcher investigates about integration, results of investigation are 52 integrated students and 69 unintegrated students.

After this researcher look at present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led, most of students get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rom complex center for the disabled. Answer for using service by need of oneself is the highest. Using period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s distributed from 1 month to 4 years and 9 months, and half of students us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60 hours per month, 5 times a week, and 3 to 4 hours for once. Also, half of the whole us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rom the places such as house and hospital, they want to receive continuous service of situation treatment support and private activity support.

After this researcher look at present condition of use for content about Personal Assistance Service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led, categories, which are reclothing and using bathroom for situation treatment support, cleaning (especially for surroundings) for home activity support, accompaniment for going out, school commuting supplement for private activity support, companion and cheering for emotion support, management of hour and schedule and using equipment for other service support, are highly appeared as the answer. Also,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causes, which are gender, grade, type of disability, combination, and conten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uch as situation treatment support, home activity support, private activity support, and other service support does not have any meaningful difference.

After this researcher look at satisfaction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led, categories, that are movement assistance for situation treatment support, Cleaning for home activity support, recreation for private activity support, companion and cheering for emotion support, and using equipment for other service support, have answer for high satisfaction about service.

When this researcher analyze the satisfaction between causes, which are gender, grade, type of disability, combination, and conten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uch as situation treatment support, home activity support, private activity support, and other service support, the satisfaction of situation treatment support has difference of meaningful level by integration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led.

The vitalization of using Personal Assistance Service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led needs characterization and systematization for offering of continuous servic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도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기본적인 학습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던 시기에는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는데 서비스 프로그램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도장애인이 환경내에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장애인이 가능한 한 최대한의 활동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과 환경간의 조화를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이소현, 1997).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 서비스 강화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로 등록하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특수교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모두 79,711명으로, 2005년 58,362명에 비해 약 2만 1천명이 늘어났다. 이 중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23,944명이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교육받고 있으며,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55,767명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확산되면서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배치되는 장애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특수학교 역시 대상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도·중복장애의 비율이 확대되어 활동보조 등 관련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를 2007년부터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7).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궁긍적인 목적 역시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것이므로, 활동보조서비스의 목적과 일치한다. 이런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중도장애학생에게도 균등한 특수교육 기회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일상생활

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권리가 있다. 중도장애학생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단순한 지원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학생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첫째, 장애학생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장애학생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대인관계가 향상되어 학교생활과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직업자립과 재활을 할 수 있으며(신경숙, 2006; 정중규, 2007), 둘째, 가족들이 장애인을 돌봐야 한다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이 줄어들며, 장애인과의 갈등의 소지도 줄어들어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해져 장애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박구휘, 2009).

활동보조서비스는 중도장애학생들이 이용함으로서 학습참여도 및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고, 장애학생을 전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가족들의 보호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가족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적 지원에 더 잘 몰입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도장애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일상생활지원과 물리적 환경 지원, 교수·학습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수동적인 삶을 살며 욕구 충족 및 사회참여도 원활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중도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그동안의 선행연구(김민아, 2007; 이기윤, 2007; 정중규, 2007; 이용화, 2008; 김한나, 2009; 임지선, 2009; 조용호, 2009; 권다진, 2010)들은 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후 만족도(김길권, 2008; 김미자, 2008)와 삶의 질 변화(고은호, 2008; 정병문,2008), 자립생활(유시영, 2008; 이용화, 2008; 한선덕, 2009) 등을 조사하는 연구의 비중이 크다. 중도장애학생들도 균등한 조건 아래 교육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나, 학령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학습지원 등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도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수급현황, 내용별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도장애학생의 이용현황에 어떠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래 목적에 부합되어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도장애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수급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중도장애학생이 이용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별(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용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중도장애학생이 이용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별(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① 중도장애아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즐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의 주요한 일상생활 활동에서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이러한 일상생활 활동을 위해 이동성, 의사소통, 자조, 학습, 독립적인 삶, 고용, 자기만족에서 필요한 지원이 요구되는 모든 연령의 개인을 뜻한다(Lindley, 1990).

본 연구에서는 전 생애에 걸쳐 많은 치료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6세부터~만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들로 명료화 시켰으며, 경기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②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기타 제공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10).

Ⅱ. 이론적 배경

1. 중도장애학생

'중도장애 아동'이라는 용어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문제들로 인하여 특별하게 고안된 교육적, 사회적, 심리학적, 의학적 서비스, 즉 지역사회에 의미 있게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과 자아성취를 위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키워주기 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 아동을 의미한다(미국연방규정집, 1998). 중도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적 기능에 심각한 결함을 나타내며, 운동장애, 의사소통 장애, 시각 및 청각의 손상, 간질 발작과 같은 의료적 상태에 대한 특수교육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Rues, Ault, Graff, & Holvoet, 2006). 그러므로 중도장애 학생들은 학습속도가 느리고 새롭게 학습한 기술에 대한 일반화 및 유지가 곤란하며, 제한된 의사소통기술과 신체적 운동발달·자립기술의 결함, 부적절한 행동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용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기술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능적 기술은 학교 내외 환경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즉각적으로 유용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심을 줄이게 하여 보다 제한이 적은 환경에 참여할 수 있게 하므로(Slaton, Schuster, collins, & Carnine, 1994), 중도장애 학생에게는 실제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기능적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도장애 학생들의 기능과 연령에 적합한 기술을 고려하여 자연적인 환경에서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며, 흥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도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가지므로, 보완대체 의사소통체계를 사용하여 감정, 요구 등을 수용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2. 자립생활의 등장

자립생활은 1962년 미국 버클리 대학에 중증장애인 에드로버츠(Ed Roberts)가 입학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학생활에서 학교시설의 비접근성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다음해 로버츠의 소식을 듣고 장애인들이 입학하였다. 그들의 대학생활은 1968년 주정부 재활국의 코웰병원 입원환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모든 것이 통제되는 병원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1969년 자립생활전략(Strategies of Independent Living)이라는 자조 모임을 결성하였다. 또한 이들은 1970년 신체장애학생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활동보조인을 지원하여 여러 학생들이 병원에서 나와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1972년 졸업생들과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해 최초의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자립생활센터는 300개소로 확대되었다. 이후 자립생활운동가들은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며, 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National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ADA(일상생활황동)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권익옹호운동에서 시작된 것이다. 문제의 근원이 장애인에게 있다고 믿었던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요인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립생활은 <표 Ⅱ-1>과 같이 전통적인 재활패러다임과 비교될 수 있다(유동철, 2009).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이념의 도입은 1997년에 개최된 “서울 국제 장애인 학술대회”에서 일본의 자립생활 운동가인 나카니시가 일본의 자립생활 운동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수많은 자립생활센터들이 생겨나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운동과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익옹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만 치중한다면 단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입장만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권익옹호가 우선이 되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표 Ⅱ-1>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패러다임의 비교

항목	재활패러다임 (Rehabilitation Paradigm)	자립생활패러다임 (Independent Living Prardigm)
문제의 정의	· 신체적 손상 · 직업기술의 결여 · 심리적 부적응 · 동기와 협력의 부족	· 전문가, 친척 등에의 의존 · 부적적한 지원 서비스 · 건축물의 장애 · 경제적 장애
문제의 위치	개인에게	환경 안/재활과정
문제의 해결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상담원 등에 의한 전문적 개입	· 옹호 · 동료상담 · 자조 · 소비자 주권 · 사회적 장애의 제거
사회적 역할	환자/클라이언트	소비자
누가 통제하는가	전문가	소비자
요구되는 결과들	· 유급취업 · 증대된 동기화 · 심리적 적응 · 완벽한 신변처리 · 최대한의 ADL(일상생활활동)	· 자기관리 ·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 · 생산성(사회 · 경제적)

3. 국내의 활동보조서비스

국내의 활동보조서비스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여기서는 주로 2010년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활동보조서비스의 정의

세계장애연구소(1987)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한 가지 또는 복수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지역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 본인 스스로 신변처리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대한의 자기관리권을 부여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통한 자기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직접 지원 또는 간접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일상적인 활동을 보조

하는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물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권리 및 역량강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며,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 생활환경에 따라 이들이 직접 서비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모집, 교육, 스케줄, 감독, 해고 등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자립생활을 추구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

2) 활동보조서비스의 목적 및 특성

활동보조서비스는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충족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자기 선택권 및 결정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국립재활원, 2010).

첫째, 서비스제공이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에는 봉사자의 시간에 맞춰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는 서비스에 필요한 봉사자원의 모든 시간을 최대화 시켜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지원한다.

둘째, 의사결정의 주체가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에게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의사결정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를 철저히 교육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유도한다.

셋째, 책임의 소재가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에게 있다. 장애인과 보조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장애인이며, 따라서 그 책임 소재도 장애인에게 있어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회기술을 스스로 터득하게 한다.

이와 같이 활동보조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욕구와 의사결정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

활동보조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이용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서비스 지

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의 신변처리지원, 둘째,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의 가사지원, 셋째,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의 일상생활 지원, 넷째, 낭독보조, 대필보조 등의 커뮤니케이션 보조, 다섯째,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 활동 지원 등의 이동의 보조 등이다.

중도장애학생의 경우 주로 옷 갈아입히기, 식사보조, 청소, 외출 시 동행, 학교 통학보조, 말벗과 격려, 동료상담, 시간· 일정관리, 기기사용(컴퓨터, 전화 등)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서비스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장애유형, 통합여부 등에 따라 수혜받는 내용이 다르다.

4)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과 선정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에 해당되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주로 이용하는 대상의 연령은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학령기 장애아동과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성인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 연령에 따라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대상자의 선정은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중증장애 위탁심사 결과 등록 1급으로 판정 받고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점수 이상인 자로, '인정조사표'에는 장애유형, 가구유형, 동거인유형, 취업여부, 소득수준, 건강보험 등 일반항목 6가지와 신체·정신조사항목 20가지, 서비스 욕구조사항목, 기타특이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 선정 절차는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중증장애인 위탁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1급 판정자에 대해서만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하고, 시·군·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을 결정한다. 이때 방문조사는 보건소 방문간호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읍·면·동이나 제공기관에 방문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시간은 4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월 40시간~100시간을 제공하고, 독거 특례 대상자는 한 등급(20시간)씩 상향조정하여 지원한

다. 그러나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3·4등급(40시간~60시간) 범위에서만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0).

5) 활동보조서비스의 관련 법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의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법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자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4.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변화 과정

2007년 4월부터 최중등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도화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비스의 내용과 그 제도가 개선되어 왔다. 아래의 <표 Ⅱ-2>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안내지침서를 근거로 본 연구자가 수정 발췌하여 종합 분석한 것이다.

<표 Ⅱ-2>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내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신청 자격	• 장애 1급 장애인 (장애유형 구분없이 지원하되, 시·도별 등록률을 감안하여 사업량 배정)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단, 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 및 주단기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 내 서비스는 불가(외출, 이동서비스만 제공) ②의료기관 입원 장애인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단, 개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 내 서비스는 불가(외출, 이동서비스만 제공) ②의료기관 입원 장애인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장애유형 : 등록 장애 구분 없음 • 중등도 : 장애1급으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차등 • 연령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 기타 독거 등 가족 사항 등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다음의 요건 하에 지원 (주거형태 : 독거) ①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일 것 ②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 독거로 확인될 것	•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다음의 요건 하에 지원 (주거형태 : 독거) ①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일 것 ②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 독거로 확인될 것 단,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라도 서비스 이용 장애인이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 입대, 장기 해외체류(원양어업, 해외취업 등), 실종신고, 교정시설 입소의 사유로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독거로 인정	•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장애등급심사(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결과 장애 1급으로 판정받고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다음의 요건 하에 지원 (주거형태 : 독거) ①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일 것 ②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 독거로 확인될 것 단,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라도 서비스 이용 장애인이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 입대, 장기 해외체류(원양어업, 해외취업 등), 실종신고, 교정시설 입소의 사유로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독거로 인정
서비스 단가	• 시간당 7,000원	• 시간당 8,000원	• 시간당 8,000원	• 시간당 8,000원

<표 Ⅱ-2> 계속

<table>
<tr><th>구분</th><th>2007년</th><th>2008년</th><th>2009년</th><th>2010년</th></tr>
<tr><td>등급별
인정시간</td><td>●시·군·구는 대상자를 점수에 따라 등급기준의 인정 시간을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20~80시간 제공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3·4등급만 부여하여 월 20~40시간 제공)
<table><tr><th rowspan="2">등급</th><th colspan="2">월 인정시간</th></tr><tr><th>성인</th><th>아동</th></tr><tr><td>1 등급</td><td>80</td><td rowspan="2">40</td></tr><tr><td>2 등급</td><td>60</td></tr><tr><td>3 등급</td><td>40</td><td rowspan="2">20</td></tr><tr><td>4 등급</td><td>20</td></tr></table></td><td>●시·군·구는 대상자를 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30~90시간 제공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3·4등급만 부여하여 월 30~50시간 제공)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1등급 30시간, 2·3·4등급 20시간 추가 지원
<table><tr><th rowspan="2">등급</th><th colspan="2">월 인정시간</th></tr><tr><th>성인</th><th>아동</th></tr><tr><td>1 등급</td><td>90</td><td rowspan="2">50</td></tr><tr><td>2 등급</td><td>70</td></tr><tr><td>3 등급</td><td>50</td><td rowspan="2">30</td></tr><tr><td>4 등급</td><td>30</td></tr></table></td><td>●시·군·구는 대상자를 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40~100시간 제공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3·4등급만 부여하여 월 40~60시간 제공)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각 20시간씩 추가 지원
<table><tr><th rowspan="2">등급</th><th colspan="2">월 인정시간</th></tr><tr><th>성인</th><th>아동</th></tr><tr><td>1 등급</td><td>100</td><td rowspan="2">60</td></tr><tr><td>2 등급</td><td>80</td></tr><tr><td>3 등급</td><td>60</td><td rowspan="2">40</td></tr><tr><td>4 등급</td><td>40</td></tr></table></td><td>●시·군·구는 대상자를 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40~100시간 제공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3·4등급만 부여하여 월 40~60시간 제공)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각 20시간씩 추가 지원
<table><tr><th rowspan="2">등급</th><th colspan="2">월 인정시간</th></tr><tr><th>성인</th><th>아동</th></tr><tr><td>1 등급</td><td>100</td><td rowspan="2">60</td></tr><tr><td>2 등급</td><td>80</td></tr><tr><td>3 등급</td><td>60</td><td rowspan="2">40</td></tr><tr><td>4 등급</td><td>40</td></tr></table></td></tr>
<tr><td>서비스
제공
및
이용원칙</td><td>●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계약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td><td>●활동보조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td><td>●활동보조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활동보조인 및 이용자 '1대1' 서비스 제공원칙</td><td>●활동보조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활동보조인 및 이용자 '1대1' 서비스 제공원칙</td></tr>
<tr><td>교통
지원금</td><td>●구체적인 언급 없음</td><td>●도서·벽지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방문 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제공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후 일괄 지급</td><td>●도서·벽지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방문 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제공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후 일괄 지급</td><td>●도서·벽지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방문 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제공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후 일괄 지급</td></tr>
</table>

<표 Ⅱ-2> 계속

<table>
<tr><th>구분</th><th>2007년</th><th>2008년</th><th>2009년</th><th>2010년</th></tr>
<tr>
<td>본인
부담금</td>
<td>•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본인 부담액 상한선 설정)
<table>
<tr><th>소득
수준</th><th>기초
수급</th><th>최저
생계비
120%
이내</th><th>최저
생계비
120%
초과</th></tr>
<tr><td>본인
부담률</td><td rowspan="2">면제</td><td>10%</td><td>20%</td></tr>
<tr><td>부담
상한액</td><td>월2만원</td><td>월4만원</td></tr>
</table></td>
<td>•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정액제)
<table>
<tr><th>소득
수준</th><th>기초
수급</th><th>최저
생계비
120%
이내</th><th>최저
생계비
120%
초과</th></tr>
<tr><td>본인
부담금</td><td>면제</td><td>월2만원</td><td>월4만원</td></tr>
</table></td>
<td>•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정액제)
<table>
<tr><th>소득
수준</th><th>기초
수급</th><th>최저
생계비
120%
이내</th><th>최저
생계비
120%
초과</th></tr>
<tr><td>본인
부담금</td><td>면제</td><td>월2만원</td><td>월4만원</td></tr>
</table></td>
<td>•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table>
<tr><th>소득
수준</th><th>기초
수급</th><th>최저
생계비
120%
이내</th><th>최저
생계비
120%
초과</th></tr>
<tr><td>본인
부담금</td><td>면제</td><td>월2만원</td><td>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기준)</td></tr>
</table>
• 최저생계비 120% 초과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지원량에 따라 차등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50%이하 : 월 196만원 이하
-50%~100% : 월 391만원 이하
-100초과~150% : 월 587만원 이하
-150% 초과 : 월 587만원 초과</td>
</tr>
<tr>
<td>바우처
유효
기간</td>
<td>•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달로 이월 가능
(07년 12월 말일까지 한해 사용 가능)</td>
<td>•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달로 이월 가능</td>
<td>• CAP 방식 도입으로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미사용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이 가능하나, 무제한 이월은 안됨

-CAP 방식 : 매월 바우처 생성시 바우처 잔량이 2개월분 미만인 경우에만 바우처 생성</td>
<td>• CAP 방식 도입으로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미사용 바우처는 다음달로 이월이 가능하나, 무제한 이월은 불가

-CAP 방식: 매월 바우처 생성시 바우처 잔량이 1개월분 미만인 경우에만 바우처 생성
-하반기부터는 이월 제한
(당월 소멸 원칙)</td>
</tr>
<tr>
<td>신고
의무</td>
<td>• 구체적인 언급 없음</td>
<td>• 구체적인 언급 없음</td>
<td>•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td>
<td>•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td>
</tr>
</table>

<표 Ⅱ-2> 계속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활동 보조인 자격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소정의 연수를 거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활동 보조인 교육 체계	●활동보조인 교육은 해당 제공기관에서 시·도 지정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제공기관을 경유하지 않고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음)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공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공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 시간	●활동보조인은 근무 첫 3개월 이내 교육기관에서 40시간 및 소속 제공 기관에서 20시간 등 총 60시간 이수	●신규교육 :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60시간 이수 ●보수교육 :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 20시간 이수 (활동보조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가사·간병도우미 등 유사서비스 제공활동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 20시간 이수)	●신규교육 :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60시간 이수 ●보수교육 :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 20시간 이수 (활동보조 또는 가사·간병도우미 등의 제공 활동 경력이 최근 1년간 350시간 이상인 자)	●신규교육 :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40시간 이수 ●보수교육 :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분기 1회 이상)으로 대체 ●활동보조 유사 경력자 : 기본교육 20시간 이수 -先 현장투입, 後 교육 실시(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조건) -유사 경력자 :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자
교육비	●교육비는 정부지원, 제공기관 및 활동보조인이 본인부담으로 충당 (이론·실습 교육비 10만원은 정부지원 5만원, 제공기관과 활동보조인이 각 25,000원씩 부담) ●제공기관에서 자체 교육 시에는 별도로 교육비 지원이 없음	●교육비 전액 정부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를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전액 예탁 ②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신청 ③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교육비 사후정산 -기본교육 15만원, 보수교육 5만원 ●교육기관에서 제공기관의 자체교육에 대하여 위탁이나 의뢰를 받은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적정 교육비 산정	●신규교육 : 15만원(정부지원 12만원, 본인부담금 3만원) -본인부담금은 활동보조 교육생이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 ●보수교육 : 5만원(전액 정부지원)	●신규(기본)교육 : 10만원(정부지원 5만원, 본인부담금 5만원) ●보수교육 : 제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정부지원 없음) ●유사경력자 교육 : 5만원(정부지원 2만5천원, 본인부담금 2만5천원)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교육생을 추천할 때 선납 -유사 경력자로서 보수교육만 받은 자(2009.12월까지)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출처: 보건복지부(2007, 2008, 2009, 2010),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본 연구자는 국내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에 대해 초기부터 2010년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크게 4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강화되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시작한 2007년에는 장애유형 구분 없이 장애등록 1급인 자를 시·도별 등록률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배정하였다. 2008년도에는 1차년도 대상자 선정과정을 보안하여 독거 특례지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신청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으로 등재되고 현장조사 결과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09년에는 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거장애인에 대한 기준과 시간을 추가하여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라도, 서비스 이용 장애인이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입대, 장기 해외체류(원양어업, 해외취업 등), 실종신고, 교정시설 입소의 사유로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도 독거로 인정하였으며, 월 20시간씩 추가 지원하였다. 최근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이용자에 대한 장애등급심사(중증장애인 위탁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최종 1급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등급별 인정시간이 확대되었다. 시·군·구는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정시간을 제공하였다. 2007년에는 1등급 80시간, 2등급 60시간, 3등급 40시간, 4등급 20시간을 제공하였으며,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3·4등급만 부여하여 월 20~40시간을 제공하였다. 200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각 등급별로 월 10시간씩 추가 지원하였으며,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1등급은 월 30시간, 2·3·4등급은 월 20시간씩 추가 지원하였다. 2009년에도 각 등급별로 월 10시간씩 추가 지원하였으며,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등급별로 한 등급씩(월 20시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최근(2010년)에는 2009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셋째, 본인 부담금이 상향 조정되었다. 2007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하였으나, 본인 부담 월상한액(월 2~4만원)을 설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다. 2008년부터 2009년도에는 '정액제'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장애수당 기준) 2만원, 차상위 초과자에 대해서는 4

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설정하였다. 최근에는 기초수급자(면제) 및 차상위계층(2만원)은 2009년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 초과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지원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진행되고 있다.

넷째, 제공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며 제공기관에서 이용 장애인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에 2010년부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지침(지도감독)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지정취소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주의, 경고, 삼진아웃을 적용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제공기관이 부정·부당 행위에 관여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시 사고와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활동보조인의 의무이행 해태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5.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에서 활동보조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도화 된지 4년이 되었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정식사업으로 시행된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관련된 선행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를 장애유형 및 서비스 수요자 연령,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별로 살펴보았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표 Ⅱ-3>과 같다.

<표 Ⅱ-3> 선행 연구 비교

연구자	연구연도	장애유형	연령	주제	연구방법
김민아	2007	지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지체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지각된 자립의 관계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양희택	2007	전체	전체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윤두선	2007	전체	전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중증장애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이기윤	2007	전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정중규	2007	전체	만 19세 이상 대학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 대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조사 연구
홍윤희	2007	시각	전체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조사 연구
고은호	2008	전체	전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조사 연구
김길권	2008	전체	전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조사 연구
김미자	2008	전체	전체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따른 자립생활욕구·생활 불편감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조사 연구
김희경	2008	전체	전체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사 연구
노언희	2008	전체	전체	장애인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문헌 연구
유시영	2008	전체	전체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사 연구
이광범	2008	지체, 뇌병변	전체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만족에 관한 연구	조사 연구
이슬기	2008	전체	만 10대 이상 남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이 사회활동참여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사 연구
이용화	2008	전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조사 연구
정병문	2008	전체	전체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사 연구
김한나	2009	전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도시와 농어촌지역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연구
박구휘	2009	전체	전체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사 연구
이삼식	2009	전체	전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조사 연구
임지선	2009	지체, 뇌병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연구	사례 연구
조용호	2009	전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조사 연구
한선덕	2009	전체	전체	중증장애인이 지각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수준이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조사 연구
권다진	2010	지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	조사 연구
신경식	2010	전체	전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문헌 연구

위의 선행연구들을 중요 변인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보조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다. 선행연구 중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전체 24편 중 12편으로 가장 많았다. 만족도에 대한 연구 중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생기는 생활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중도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연구한 선행연구(김길권, 2008; 김미자, 2008) 결과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김한나, 2009)에서는 농어촌지역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폭이 좁아 대부분이 가사지원에 몰려있으며 나머지 도움은 미약하다는 지적이며, 이용시간 면에서도 도시보다 적게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서비스 제공주체, 이용자의 권리의식정도, 활동보조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개별적 외부지원 여부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지며, 남자가 여자보다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희택, 2007; 이광범, 2008). 조용호(2009)의 연구 역시 활동보조서비스의 전문성만족도에서 조사대상자의 성별만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광범(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생기는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이기윤, 2007; 정병문, 2008; 박구휘, 2009)를 살펴본 결과 활동보조서비스의 만족도만인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의 변화에서 대체적으로 집안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정신적인 만족도는 거의 보통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 이용만족도, 직업유무와 결혼 상태, 이용자의 연령대, 이용료의 본인부담 여부 및 연령, 장애의 선천성 유무, 역할수행능력, 가족의지지, 자존감 등이었으며 이러한 요인에 따라 생

활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경, 2008; 이삼식, 2009; 신경식, 2010).

둘째,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생기는 자립과 자립생활에 관한 연구이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중인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자립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지체장애인의 지각된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을 지각하는 데에 물리적인 활동의 제한뿐 아니라 대처효능감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아, 2007).

자립생활에 관한 선행연구(김미자, 2008; 유시영, 2008; 이용화, 2008; 한선덕, 2009)는 주로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을 연구하였으며, 활동보조서비스가 자립생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소득활동을 할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음으로서, 소득활동과 훈련활동, 장애인단체나 조직참여 등이 긍정적으로 조사되어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과 양보다 이용자의 선택 및 통제정도가 자립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구적 일상생활수행 관련 서비스와 사회활동 관련 서비스, 사회활동 참여 유무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상생활동작 관련 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 필요수준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활동보조서비스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충족 상태를 알아본 결과(홍윤희, 2007), 시각장애인들의 보편적인 애로사항인 보행, 외출 등 이동상의 지원보다 커뮤니케이션 보조(대독, 대필 등 학습지원)와 가사·육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의 장애 조건에 대한 원초적인 적응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활성화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노언희, 2008; 박구휘, 2009)를 살펴보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서비스 영역과 인정 시간을 증가시키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보조인 교육의 통합 매뉴얼을 구성하여야 하며, 중개기관 간의 상호 정보교환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다각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선정기준, 이용료 자부담, 이용시간 제약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넷째,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고은호(2008)와 정병문(2008)의 연구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사회활동 증가와 참여 확대가 이루어져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중증장애라는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어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장애인보다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윤두선, 2007; 권다진, 2010)도 있었다.

그 밖에 자기결정권, 사회활동참여, 학교생활 및 학습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도 있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 경험을 확인한 결과 선택권, 관리 및 통제의 역할, 활동보조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 하고 있으며(임지선, 2009),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슬기, 2008). 또한 중증장애대학생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학교생활과 학습효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자신감 회복과 대인관계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높게 나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해주었다(정중규, 2007).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정책시행이후 최근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증진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수행기관 중 경기도에 위치하며 연구에 호의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 5곳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4곳에서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도장애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 전화연락을 통해 담당자로부터 본 논문에 적절한 대상 학생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복지관 2곳과 자립생활센터 3곳은 연구자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논문 설명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활동보조서비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대상 학생을 선정한 뒤에 활동보조인의 협조를 받아 설문을 하였다. 나머지 복지관 3곳과 자립생활센터 1곳은 연구자가 전화연락을 통해 담당자로부터 논문 설명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수행기관으로 우편을 보내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제공기관별 설문지를 배포하고 4주 뒤에 수행센터로 총 130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이 70.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응답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 응답자 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총 121명의 설문응답자를 최종 유효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중도장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대부분 연령이 낮거나 설문지 작성이 어려우므로 설문지는 중도장애학생의 부모를 통해 작성되었다.

설문지를 작성해준 연구 참여 장애학생의 부모에 대한 기초사항을 제시하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참여 학생의 부모에 대한 기초사항(N=121)

변인	구분		빈도(n)	백분율(%)
성 별	남자		23	19.0
	여자		98	81.0
연 령	20대 이하		3	2.5
	20대		4	3.3
	30대		31	25.6
	40대		76	62.8
	50대 이상		7	5.8
직업유무	무직		64	52.9
	시간제근무		23	19.0
	종일근무		34	28.1
가구의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23	19.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1	33.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	23.1
	300만원 이상		29	24.0
가사조력자	없다		96	79.3
	가사도우미		5	4.1
	외가/친가 부모		13	10.7
	기타		7	5.8
자녀의 수	남자	0명	28	23.1
		1명	62	51.2
		2명	29	24.0
		3명	2	1.7
	여자	0명	42	34.7
		1명	48	39.7
		2명	27	22.3
		3명	2	1.7
		4명	2	1.7
수급여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22	18.2
	국민기초생활 비수급권자		99	81.8

설문지를 작성해준 부모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자가 23명(19.0%), 여자가 98명(81.0%)이였다. 연령은 40대(62.8%)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31명(25.6%), 50대 이상 7명(5.8%), 20대 4명(3.3%), 20대 이하 3명(2.5%)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무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이 무직이 64명(52.9%)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종일근무 34명(28.1%), 시간제근무 23명(19.0%)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의 월평균 수입으로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33.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조력자를 살펴본 결과 가사조력자가 없다는 응답(79.3%)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121명의 응답자 중 62명(51.2%)이 아들 1명, 29명(24.0%)이 아들 2명, 2명(1.7%)이 아들 3명, 나머지 28명(23.1%)이 자녀 중 아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121명의 응답자 중 48명(39.7%)이 딸 1명, 27명(22.3%)이 딸 2명, 2명(1.7%)이 딸 3명, 2명(1.7%)이 딸 4명, 나머지 42명(34.7%)이 자녀 중 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문응답자의 수급여부를 살펴본 결과 22명(18.2%)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이며, 나머지 99명(81.8%)이 국민기초생활 비수급권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경기지역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도장애학생의 이용내용과 이용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설문지이다(부록1 참조). 이 설문지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구성된 2010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를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크게 설문지를 작성한 연구대상의 부모와 연구대상의 인적사항을 묻는 기초사항과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영역 등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에 대한 기초사항 질문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유무, 가구의 월평균 수입, 가사조력자, 자녀의 수, 국민기초생활 수급유무 등 총 7문항이며, 연구대상에 대한 기초사항 질문으로는 성별, 연령, 장애 진단명, 장애등급, 장애진단시기, 학년, 통합여부 등 7문항이

다.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실태에 관해서는 다시 두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첫째, 활동보조서비스 수급현황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이용계기, 이용기간, 이용시간, 서비스 제공 장소, 앞으로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등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둘째,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 내용 및 만족도는 5가지 지원 내용으로 구분하여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욕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화장실이용, 이동도움, 배설도움, 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지원 9문항, 청소(주변정돈), 세탁, 취사, 쇼핑 등 가사 지원 4문항,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학교에서의 학습보조, 학교 통학보조, 학교에서의 이동보조, 커뮤니케이션, 야외문화활동, 자기관리 등 개인활동 지원 8문항, 말벗과 격려, 동료상담 등 정서 지원 2문항, 시간·일정관리, 금전관리, 기기사용 등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3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을 제시하면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설문지 구성

<table>
<tr><th>영역</th><th colspan="2">하위영역</th><th>문항수</th><th>주요내용</th></tr>
<tr><td rowspan="2">기초조사</td><td colspan="2">부모의 기초조사</td><td>7</td><td rowspan="2">인구학적 특성</td></tr>
<tr><td colspan="2">아동의 기초조사</td><td>7</td></tr>
<tr><td rowspan="6">활동보조
서비스
실태</td><td>일반
사항</td><td>활동보조서비스
수급현황</td><td>8</td><td>제공기관, 이용기간,
이용시간, 제공장소, 앞으로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td></tr>
<tr><td rowspan="5">요구
사항</td><td>신변처리 지원</td><td>9</td><td>이용내용 및 만족도</td></tr>
<tr><td>가사 지원</td><td>4</td><td>이용내용 및 만족도</td></tr>
<tr><td>개인활동 지원</td><td>8</td><td>이용내용 및 만족도</td></tr>
<tr><td>정서 지원</td><td>2</td><td>이용내용 및 만족도</td></tr>
<tr><td>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td><td>3</td><td>이용내용 및 만족도</td></tr>
<tr><td colspan="3">계</td><td>48</td><td></td></tr>
</table>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연구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를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선정, 재구성하여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설문지 초안은 특수교육 전공 분야 교수 1인과 세 차례 수정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학생 및 부모의 기초사항 항목을 수정하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시는 경력 3년인 교사의 자문을 통해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 제공 서비스 영역에 7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수정된 설문지를 장애인복지관 복지사 1명과 자립생활센터 복지사 1명, 특수교사 3명, 일반학급교사 1명,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 1명 등 총 8명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기간은 2010년 2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였다. 수정된 설문지는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특수교육전문가와 협의하여 질문지를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0년 6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경기도에 위치한 5곳의 장애인복지관과 4곳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설문조사를 시작한 결과, 각 제공기관별 코디네이터를 통해 가정으로 배부하여 회수하는 처리상의 번거로움과 설문 응답자의 시간제약으로 인하여 185명 중 130명(응답률: 70.27%)이 본 설문에 응답해 주었다.

4.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는 중도장애학생의 활동보조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된 설문지는 부호화를 통해 입력한 뒤 SPSS 프로그램(17.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첫째, 설문지를 작성한 장애학생의 부모에 대한 기초사항과 중도장애학생의 기초사항, 활동보조서비스 수급현황 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이 중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장소,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등 복수응답을 요구한 문항은 빈도와 반응백분율 및 케이스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활동보조서비스 내용(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기타 제공 서비스)별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응답분석을 수행한 뒤에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성별, 학년, 장애진단면, 통학여부 등의 변인과 내용별 이용내용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활동보조서비스 내용(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기타 제공 서비스)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성별, 학년, 장애진단명, 통학여부 등의 변인과 내용별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이 연구는 중도장애학생의 활동보조서비스 현황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장에서는 중도장애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수급현황과 활동보조서비스 내용별 이용현황 및 만족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중도장애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활동보조서비스 수급현황

1) 중도장애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은 121명 중 남자가 77명(63.6%), 여자는 44명(36.4%)으로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6세(72개월)부터 18세(216개월)까지 골고루 분포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나이는 11세(표준편차: 37.61)이다. 장애진단명으로는 전체응답자 중 뇌병변장애가 37명(30.6%), 지적장애 35명(28.9%), 자폐성장애 23명(19.0%), 지체장애 21명(17.4%), 시각장애 3명(2.5%), 정신장애 2명(1.7%)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1급이 117명(96.7%), 2급이 4명(3.3%)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것으로 지체, 뇌병변, 자폐성, 지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장애진단시기는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3세(156개월)까지 있으며, 평균적으로 3세 5개월(42개월)에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장애학생의 학년으로 무학(미취학포함)이 14명(11.6%), 초등학교 재학/졸업 75명(62.0%), 중학교 재학/졸업 23명(19.0%), 고등학교 재학/졸업이 9명(7.4)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에 재학/졸업한 학생(62.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통합하고 있는 학생이 52명(41.6%), 통합하지 않고 있는 학생이 69명(55.2%)으로 나타났다. 중도장애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중도장애학생의 특성(N=121)

구분	내용	빈도(n)	백분율(%)
성 별	남자	77	63.6
	여자	44	36.4
진단명	지체장애	21	17.4
	뇌병변장애	37	30.6
	시각장애	3	2.5
	지적장애	35	28.9
	자폐성장애	23	19.0
	정신장애	2	1.7
장애등급	1급	117	96.7
	2급	4	3.3
학 년	무학(미취학포함)	14	11.6
	초등학교 재학/졸업	75	62.0
	중학교 재학/졸업	23	19.0
	고등학교 재학/졸업	9	7.4
통합여부	통합하고 있다	52	43.0
	통합하고 있지 않다	69	57.0

	최소값(개월)	최대값(개월)	M	SD
연령	72	216	133.66	37.61
장애진단시기	3	156	42.07	33.17

2)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을 분석해보면 <표 Ⅳ-2>와 같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용자가 78명(6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립생활센터 39명(32.2%), 기타 장소 2명(1.7%), 자립후견기관과 동사무소는 각 1명(0.8%)으로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중도장애학생 중 절반 이상(64.5%)이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2>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N=121)

구분	빈도(n)	백분율(%)
자립생활센터	39	32.2
복지관	78	64.5
자립후견기관	1	0.8
동사무소	1	0.8
기타	2	1.7
계	121	100.0

3)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계기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계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 이용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63명(5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알았다는 응답은 24명(19.8%), 가족 및 주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았다는 응답은 19명(15.7%),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14명(11.6%), TV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알았다는 응답은 1명(0.8%)으로 가장 적었다.

<표 Ⅳ-3>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계기(N=121)

구분	빈도(n)	백분율(%)
본인의 필요에 의해	63	52.1
TV방송, 신문 등을 통해	1	0.8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통해	14	11.6
가족 및 주변 지인의 소개를 통해	19	15.7
지역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24	19.8
계	121	100.0

4)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과 횟수 및 시간

중도장애학생들이 현재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년 9개월(57개월)까지 고루 분포하였는데, 평균적으로 1년 6개월(18개월)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4>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N=121)

빈도(n)	최소값(개월)	최대값(개월)	M	SD
121	1	57	18.43	11.78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도장애학생들의 월 이용시간, 주 이용횟수 및 1회 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5>과 같다.

<표 Ⅳ-5>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N=121)

구분	구분	빈도(n)	백분율(%)
월 이용시간	20시간	2	1.7
	40시간	18	14.9
	60시간	91	75.2
	80시간	4	3.3
	81시간 이상~180시간 이하	6	5.0
주 이용횟수	주 1회	2	1.7
	주 2회	8	6.6
	주 3회	25	20.7
	주 4회	16	13.2
	주 5회	62	51.2
	주 5회 초과	8	6.6
1회 이용시간	1~2시간 이하	16	13.2
	3~4시간 이하	80	66.1
	5~7시간 이하	19	15.7
	8시간 이상	6	5.0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월 이용시간으로는 60시간이 91명(75.2%)으로 전체의 반 이상이, 그 다음으로 40시간이 18명(14.9%), 81시간 이상~180시간 이하가 6명(5.0%), 80시간이 4명(3.3%), 20시간은 2명(1.7%)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주 이용횟수는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62명(51.2%)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주 5회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3회이용자가 25명(20.7%), 주 4회 이용자가 16명(13.2%), 주 2회 및 주 5회 초과 이용자가 각 8명(6.6%), 나머지 이용자 2명(1.7%)은 주 1회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활동보조서비스 1회 이용시간으로는 80명이 3~4시간 이하(66.1%), 그 다음으로 19명(15.7%)이 5~7시간 이하, 16명(13.2%)이 1~2시간 이하, 6명(5.0%)이 8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월 이용시간, 주 이용회수, 1회 이용시간 등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월 60시간(75.2%), 주 5회(51.2%)를 이용하고 있으며, 1회에 이용시간이 3~4시간 이하(66.1%)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활동보조서비스가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3·4등급(40시간~60시간)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5)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장소

중도장애학생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장소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6>과 같다. 82명(케이스백분율: 67.8%) 이상이 병원(치료실)과 집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4명(케이스백분율: 61.2%)으로 학습보조, 이동보조, 대필보조, 통학(학교 등·하교)보조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외의 27명(케이스백분율: 22.3%)은 기타 장소(어린이집, 교회, 복지관, 학원, 수영장, 마트, 활동보조인 집 등)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6>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장소(N=267)

구분	빈도(n)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집	82	30.7	67.8
학교	74	27.7	61.2
병원(치료실)	84	31.5	69.4
기타	27	10.1	22.3
계	267*	100.0	220.7

*복수응답한 결과임.

6) 계속적으로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중도장애학생들에게 앞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10가지)한 결과는 <표 Ⅳ-7>과 같으며, 전체 121명의 응답 결과 중 결측지를 제외한 79명의 응답 결과를 가지고 다중응답분석을 수행한 뒤 빈도와 백분율, 케이스백분율을 분석하였다.

내용(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등)별 분석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신변처리 지원(케이스백분율: 464.6%)과 개인활동 지원(케이스백분율: 360.7%) 항목을 계속적으로 제공 받기를 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사지원(케이스백분율: 75.9%), 정서지원(케이스백분율: 58.3%),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케이스백분율: 40.6%) 순으로 제공받고 싶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변처리 지원의 항목에서는 목욕도움 및 세면도움 및 식사보조를, 가사 지원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방 청소와 주변정돈 및 쇼핑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다. 개인활동 지원에서는 중도장애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통학보조와 병원(치료실), 은행, 산책 등을 위한 외출 시 동행 서비스를, 정서지원에서는 말벗과 격려를 가장 필요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에서는 컴퓨터나 전화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사용 지도 항목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모든 서비스 중에서 신변처리 지원과 개인활동 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대부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를 지닌 중도장애학생들이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Ⅳ-8> 앞으로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N=790)

구분		빈도(n)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신변처리	1) 목욕도움	55	7.0	69.6
	2) 세면도움	50	6.3	63.3
	3) 옷 갈아입히기	45	5.7	57.0
	4) 체위변경	20	2.5	25.3
	5) 신체기능 유지·증진	35	4.4	44.3
	6) 화장실 이용	48	6.1	60.8
	7) 이동도움	23	2.9	29.1
	8) 배설도움	30	3.8	38.0
	9) 식사보조	61	7.7	77.2
가사	10) 청소 및 주변정돈	25	3.2	31.6
	11) 세탁	11	1.4	13.9
	12) 취사	6	.8	7.6
	13) 쇼핑	18	2.3	22.8
개인활동	14) 외출시 동행	58	7.3	73.4
	15) 일상 업무 대행	17	2.2	21.5
	16) 학교에서의 학습보조	43	5.4	54.4
	17) 학교 통학보조	57	7.2	72.2
	18) 학교에서의 이동보조	32	4.1	40.5
	19) 커뮤니케이션 보조	13	1.6	16.5
	20) 야외문화활동	40	5.1	50.6
	21) 자기관리	25	3.2	31.6
정서	22) 말벗과 격려	39	4.9	49.4
	23) 동료상담	7	.9	8.9
기타	24) 시간 및 일정관리	10	1.3	12.7
	25) 금전관리	3	.4	3.8
	26) 기기사용	19	2.4	24.1
계		790*	100.0	1000.1

*복수응답한 결과임.

2.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별 이용현황

1) 신변처리 지원

중도장애학생들의 신변처리 지원에 관한 9가지 이용내용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 중 옷 갈아입히기와 화장실 이용 등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각 6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세면도움과 이동도움 등이 각 57명, 목욕도움 46명, 체위변경 40명, 신체기능 유지·증진 3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중도장애학생들의 주요 장애유형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1급이므로 신변처리 지원 중에서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동, 세면도움, 이동도움, 배설도움 등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Ⅳ-8> 신변처리 지원 현황(N=498)

구분	빈도(n)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1) 목욕도움	46	9.2	48.4
2) 세면도움	57	11.4	60.0
3) 옷 갈아입히기	67	13.5	70.5
4) 체위변경	40	8.0	42.1
5) 신체기능 유지·증진	39	7.8	41.1
6) 화장실 이용	67	13.5	70.5
7) 이동도움	57	11.4	60.0
8) 배설도움	54	10.8	56.8
9) 식사보조	71	14.3	74.7
계	498*	100.0	524.2

***복수응답한 결과임.**

① 성별에 따른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성별 신변처리 지원 현황(N=498)

구분	남자		여자		*p*
	n	%	n	%	
1) 목욕도움	24	8.8	22	9.8	.91
2) 세면도움	33	12.1	24	10.7	
3) 옷 갈아입히기	38	13.9	29	12.9	
4) 체위변경	18	6.6	22	9.8	
5) 신체기능 유지·증진	19	7.0	20	8.9	
6) 화장실 이용	36	13.2	31	13.8	
7) 이동도움	33	12.1	24	10.7	
8) 배설도움	30	11.0	24	10.7	
9) 식사보조	42	15.4	29	12.9	
계	273	100.0	225	100.0	

② 학년 유형에 따른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 유형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이때 학년 변인의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많아 카이제곱 검정량 값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므로, 무학(미취학 포함)과 초등학교 재학/졸업을 초등학교 이하로, 중학교 재학/졸업과 고등학교 재학/졸업을 중·고등학교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학년별 신변처리 지원 현황(N=498)

구분	초등학교 이하		중・고등학교		*p*
	n	%	n	%	
1) 목욕도움	33	9.4	13	8.8	.91
2) 세면도움	38	10.9	19	12.8	
3) 옷 갈아입히기	48	13.7	19	12.8	
4) 체위변경	27	7.7	13	8.8	
5) 신체기능 유지·증진	24	6.9	15	10.1	
6) 화장실 이용	51	14.6	16	10.8	
7) 이동도움	41	11.7	16	10.8	
8) 배설도움	39	11.1	15	10.1	
9) 식사보조	49	14.0	22	14.9	
계	350	100.0	148	100.0	

③ 장애유형에 따른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장애진단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15가지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중도장애학생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각장애와 정신장애 학생들의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많아 카이제곱 검정량 값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므로 시각장애와 정신장애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장애유형별 신변처리 지원 현황(N=474)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p*
	n	%	n	%	n	%	n	%	
1) 목욕도움	11	9.6	13	8.1	13	10.7	7	9.1	.57
2) 세면도움	12	10.4	17	10.6	16	13.1	9	11.7	
3) 옷 갈아입히기	12	10.4	20	12.5	21	17.2	11	14.3	
4) 체위변경	11	9.6	18	11.3	6	4.9	3	3.9	
5) 신체기능 유지·증진	13	11.3	16	10.0	6	4.9	2	2.6	
6) 화장실 이용	14	12.2	21	13.1	18	14.8	11	14.3	
7) 이동도움	13	11.3	20	12.5	9	7.4	11	14.3	
8) 배설도움	11	9.6	19	11.9	13	10.7	9	11.7	
9) 식사보조	18	15.7	16	10.0	20	16.4	14	18.2	
계	115	100.0	160	100.0	122	100.0	77	100.0	

④ 통합여부에 따른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합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2>과 같다. 분석 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통합여부별 신변처리 지원 현황(N=498)

구분	통합하고 있다		통합하고 있지 않다		*p*
	n	%	n	%	
1) 목욕도움	19	9.1	27	9.3	.99
2) 세면도움	23	11.0	34	11.8	
3) 옷 갈아입히기	27	12.9	40	13.8	
4) 체위변경	15	7.2	25	8.7	
5) 신체기능 유지·증진	17	8.1	22	7.6	
6) 화장실 이용	29	13.9	38	13.1	
7) 이동도움	26	12.4	31	10.7	
8) 배설도움	21	10.0	33	11.4	
9) 식사보조	32	15.3	39	13.5	
계	209	100.0	289	100.0	

2) 가사 지원

중도장애학생들의 가사 지원에 관한 4가지 이용내용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3>와 같다. 가사 지원 이용내용 중 서비스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청소(주변정돈) 21명, 취사 12명, 세탁 10명, 쇼핑 6명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활동보조인을 통해 서비스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청소(주변정돈)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3> 가사 지원 현황(N=49)

구분	빈도(n)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1) 청소(주변정돈)	21	42.9	87.5
2) 세탁	10	20.4	41.7
3) 취사	12	24.5	50.0
4) 쇼핑	6	12.2	25.0
계	49*	100.0	204.2

***복수응답한 결과임.**

① 성별에 따른 가사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가사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사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 성별 가사 지원 현황(N=49)

구분	남자		여자		*p*
	n	%	n	%	
1) 청소(주변정돈)	13	46.4	8	38.1	.72
2) 세탁	4	14.3	6	28.6	
3) 취사	7	25.0	5	23.8	
4) 쇼핑	4	14.3	2	9.5	
계	28	100.0	21	100.0	

② 학년 유형에 따른 가사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 유형에 따라 가사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사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이때 학년 변인의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많아 카이제곱 검정량 값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므로, 무학(미취학 포함)과 초등학교 재학/졸업을 초등학교 이하로, 중학교 재학/졸업과 고등학교 재학/졸업을 중・고등학교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학년에 따라 가사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5> 학년별 가사 지원 현황(N=49)

구분	초등학교 이하		중・고등학교		*p*
	n	%	n	%	
1) 청소(주변정돈)	16	42.1	5	45.5	1.00
2) 세탁	8	21.1	2	18.2	
3) 취사	9	23.7	3	27.3	
4) 쇼핑	5	13.2	1	9.1	
계	38	100.0	11	100.0	

③ 장애유형에 따른 가사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가사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장애진단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사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15가지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중도장애학생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각장애와 정신장애 학생들의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많아 카이제곱 검정량 값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므로 시각장애와 정신장애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가사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6> 장애유형별 가사 지원 현황(N=44)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p*
	n	%	n	%	n	%	n	%	
1) 청소(주변정돈)	4	30.8	5	38.5	5	62.5	5	50.0	.96
2) 세탁	3	23.1	3	23.1	1	12.5	2	20.0	
3) 취사	3	23.1	4	30.8	1	12.5	2	20.0	
4) 쇼핑	3	23.1	1	7.7	1	12.5	1	10.0	
계	13	100.0	13	100.0	8	100.0	10	100.0	

④ 통합여부에 따른 가사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가사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합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사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7>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가사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7> 통합여부별 가사 지원 현황(N=49)

구분	통합하고 있다		통합하고 있지 않다		*p*
	n	%	n	%	
1) 청소(주변정돈)	8	44.4	13	41.9	.77
2) 세탁	4	22.2	6	19.24	
3) 취사	3	16.7	9	29.0	
4) 쇼핑	3	16.7	3	9.7	
계	18	100.0	31	100.0	

3) 개인활동 지원

중도장애학생들의 개인활동 지원에 관한 8가지 이용내용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8>과 같다. 개인활동 지원 내용 중에서는 외출 시 동행(86명)과 학교 통학보조(73명)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야외문화활동(32명), 자기관리(25명), 학교에서의 학습보조(17명), 학교에서의 이동보조(16명), 일상 업무 대행(13명), 커뮤니케이션(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들이 활동보조인을 통해 중도장애학생들의 학교 통학보조와 장애학생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병원(치료실) 동행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8> 개인활동 지원 현황(N=269)

구분	빈도(n)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1) 외출 시 동행	86	32.0	78.9
2) 일상 업무 대행	13	4.8	11.9
3) 학교에서의 학습보조	17	6.3	15.6
4) 학교 통학보조	73	27.1	67.0
5) 학교에서의 이동보조	16	5.9	14.7
6) 커뮤니케이션	7	2.6	6.4
7) 야외문화활동	32	11.9	29.4
8) 자기관리	25	9.3	22.9
계	269*	100.0	246.8

***복수응답한 결과임.**

① 성별에 따른 개인활동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개인활동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개인활동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9>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개인활동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9> 성별 개인활동 지원 현황(N=269)

구분	남자		여자		*p*
	n	%	n	%	
1) 외출 시 동행	51	30.5	35	34.3	.83
2) 일상 업무 대행	9	5.4	4	3.9	
3) 학교에서의 학습보조	10	6.0	7	6.9	
4) 학교 통학보조	45	26.9	28	27.5	
5) 학교에서의 이동보조	12	7.2	4	3.9	
6) 커뮤니케이션	3	1.8	4	3.9	
7) 야외문화활동	22	13.2	10	9.8	
8) 자기관리	15	9.0	10	9.8	
계	167	100.0	102	100.0	

② 학년 유형에 따른 개인활동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 유형에 따라 개인활동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개인활동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0>과 같다. 이때 학년 변인의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많아 카이제곱 검정량 값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므로, 무학(미취학 포함)과 초등학교 재학/졸업을 초등학교 이하로, 중학교 재학/졸업과 고등학교 재학/졸업을 중・고등학교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표 Ⅳ-20> 학년별 개인활동 지원 현황(N=269)

구분	초등학교 이하		중・고등학교		*p*
	n	%	n	%	
1) 외출 시 동행	61	32.1	25	31.6	.96
2) 일상 업무 대행	10	5.3	3	3.8	
3) 학교에서의 학습보조	13	6.8	4	5.1	
4) 학교 통학보조	52	27.4	21	26.6	
5) 학교에서의 이동보조	12	6.3	4	5.1	
6) 커뮤니케이션	5	2.6	2	2.5	
7) 야외문화활동	22	11.6	10	12.7	
8) 자기관리	15	7.9	10	12.7	
계	190	100.0	79	100.0	

분석결과를 보면, 학년에 따라 개인활동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장애유형에 따른 개인활동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개인활동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장애진단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개인활동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1>과 같다. 15가지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중도장애학생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각장애와 정신장애 학생들의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많아 카이제곱 검정량 값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므로, 시각장애와 정신장애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개인활동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 장애유형별 개인활동 지원 현황(N=258)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p*
	n	%	n	%	n	%	n	%	
1) 외출 시 동행	16	33.3	31	41.9	19	26.4	15	23.4	
2) 일상 업무 대행	2	4.2	4	5.4	5	6.9	2	3.1	
3) 학교에서의 학습보조	5	10.4	3	4.1	4	5.6	5	7.8	
4) 학교 통학보조	12	25.0	18	24.3	23	31.9	18	28.1	
5) 학교에서의 이동보조	4	8.3	2	2.7	5	6.9	5	7.8	
6) 커뮤니케이션	0	.0	3	4.2	1	1.4	2	3.1	
7) 야외문화활동	5	10.4	7	9.5	8	11.1	11	17.2	
8) 자기관리	4	8.3	6	8.1	7	9.7	6	9.4	
계	48	100.0	74	100.0	72	100.0	64	100.0	

④ 통합여부에 따른 개인활동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개인활동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합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개인활동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2>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개인활동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2> 통합여부별 개인활동 지원 현황(N=269)

구분	통합하고 있다		통합하고 있지 않다		*p*
	n	%	n	%	
1) 외출 시 동행	37	26.6	49	37.7	.09
2) 일상 업무 대행	8	5.8	5	3.8	
3) 학교에서의 학습보조	12	8.6	5	3.8	
4) 학교 통학보조	35	25.2	38	29.2	
5) 학교에서의 이동보조	11	7.9	5	3.8	
6) 커뮤니케이션	6	4.3	1	0.8	
7) 야외문화활동	19	13.7	13	10.0	
8) 자기관리	11	7.9	14	10.8	
계	139	100.0	130	100.0	

4) 정서 지원

중도장애학생들의 정서 지원에 관한 2가지 이용내용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23>과 같으며, 말벗과 격려 36명, 동료상담 3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23> 정서 지원 현황(N=68)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1) 말벗과 격려	36	52.9	80.0
2) 동료상담	32	47.1	71.1
계	68*	100.0	151.1

***복수응답한 결과임.**

① 성별에 따른 정서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정서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서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4>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정서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4> 성별 정서 지원 현황(N=68)

구분	남자		여자		*p*
	n	%	n	%	
1) 말벗과 격려	23	52.3	13	54.2	.88
2) 동료상담	21	47.7	11	45.8	
계	44	100.0	24	100.0	

② 학년 유형에 따른 정서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 유형에 따라 정서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서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5>와 같다. 이때 학년 변인의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많아 카이제곱 검정량 값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므로, 무학(미취학 포함)과 초등학교 재학/졸업을 초등학교 이하로, 중학교 재학/졸업과 고등학교 재학/졸업을 중・고등학교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년에 따라 정서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5> 학년별 정서 지원 현황(N=68)

구분	초등학교 이하		중・고등학교		*p*
	n	%	n	%	
1) 말벗과 격려	24	54.5	12	50.0	.72
2) 동료상담	20	45.5	12	50.0	
계	44	100.0	24	100.0	

③ 장애유형에 따른 정서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정서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장애진단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서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6>과 같다. 15가지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중도장애학생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각장애와 정신장애 학생들의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많아 카이제곱 검정량 값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므로 시각장애와 정신장애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유형에 따라 정서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6> 장애유형별 정서 지원 현황(N=65)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p*
	n	%	n	%	n	%	n	%	
1) 말벗과 격려	8	44.4	11	64.7	9	45.0	6	60.0	.54
2) 동료상담	10	55.6	6	35.3	11	55.0	4	40.0	
계	18	100.0	17	100.0	20	100.0	10	100.0	

④ 통합여부에 따른 정서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정서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합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서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7>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정서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7> 통합여부별 정서 지원 현황(N=68)

구분	통합하고 있다		통합하고 있지 않다		*p*
	n	%	n	%	
1) 말벗과 격려	17	50.0	19	55.9	.63
2) 동료상담	17	50.0	15	44.1	
계	34	100.0	34	100.0	

5)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중도장애학생들의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에 관한 3가지 이용내용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28>과 같으며, 시간·일정관리 및 기기사용(전화, 컴퓨터 등)이 각 8명, 금전관리가 5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28>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현황(N=21)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1) 시간·일정관리	8	38.1	66.7
2) 금전관리	5	23.8	41.7
3) 기기사용	8	38.1	66.7
계	21*	100.0	175.0

*복수응답한 결과임.

① 성별에 따른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9>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9> 성별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현황(N=21)

구분	남자		여자		*p*
	n	%	n	%	
1) 시간・일정관리	5	38.5	3	37.5	1.00
2) 금전관리	3	23.1	2	25.0	
3) 기기사용	5	38.5	3	37.5	
계	13	100.0	8	100.0	

② 학년 유형에 따른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 유형에 따라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30>과 같다. 이때 학년 변인의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많아 카이제곱 검정량 값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므로, 무학(미취학 포함)과 초등학교 재학/졸업을 초등학교 이하로, 중학교 재학/졸업과 고등학교 재학/졸업을 중・고등학교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학년에 따라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0> 학년별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현황(N=21)

구분	초등학교 이하		중・고등학교		*p*
	n	%	n	%	
1) 시간・일정관리	6	40.0	2	33.3	1.00
2) 금전관리	4	26.7	1	16.7	
3) 기기사용	5	33.3	3	50.0	
계	15	100.0	6	100.0	

③ 장애유형에 따른 정서 기타 제공 서비스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장애진단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기타 제

공 서비스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31>과 같다. 15가지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진단을 받은 중도장애학생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 장애유형별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현황(N=21)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p*
	n	%	n	%	n	%	n	%	
1) 시간・일정관리	2	33.3	2	40.0	2	50.0	2	33.3	.89
2) 금전관리	1	16.7	2	40.0	0	.0	2	33.3	
3) 기기사용	3	50.0	1	20.0	2	50.0	2	33.3	
계	6	100.0	5	100.0	4	100.0	6	100.0	

④ 통합여부에 따른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용내용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용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합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용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32>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용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2> 통합여부별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현황(N=21)

구분	통합하고 있다		통합하고 있지 않다		*p*
	n	%	n	%	
1) 시간・일정관리	6	40.0	2	33.3	1.00
2) 금전관리	3	20.0	2	33.3	
3) 기기사용	6	40.0	2	33.3	
계	15	100.0	6	100.0	

3. 활동보조서비스의 만족도

이 장에서는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내용별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모든 문항의 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매우 도움이 된다'까지로 Liket-5점 척도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1) 신변처리 지원

중도장애학생들의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는 <표 Ⅳ-33>과 같다.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는 전반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매우 도움이 된다'까지 고루 분포하였다.

<표 Ⅳ-33>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목욕도움(n=46)	·	2	7	8	29
2) 세면도움(n=57)	·	1	10	18	28
3) 옷 갈아입히기(n=67)	·	1	11	17	38
4) 체위변경(n=40)	·	1	5	8	26
5) 신체기능 유지·증진(n=39)	·	2	4	7	26
6) 화장실 이용(n=67)	·	·	7	22	38
7) 이동도움(n=57)	·	1	6	13	37
8) 배설도움(n=54)	·	·	9	14	31
9) 식사보조(n=71)	·	·	11	23	37

중도장애학생들의 신변처리 지원에 관한 9가지 이용내용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34>와 같다. 중도장애학생들마다 제공받는 서비스 항목이 모두 다르므로 응답한 문항의 만족도만 가지고 분석하였다. 신변처리 지원 내용 중 이동도움에 대한 만족도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체위변경이 4.48, 신체기

능 유지·증진/화장실 이용 각 4.46, 배설도움 4.41, 목욕도움 4.39, 옷 갈아입히기/식사보조 각 4.37, 세면도움 4.28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34>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1) 목욕도움(n=46)	4.39	.91
2) 세면도움(n=57)	4.28	.82
3) 옷 갈아입히기(n=67)	4.37	.81
4) 체위변경(n=40)	4.48	.82
5) 신체기능 유지·증진(n=39)	4.46	.88
6) 화장실 이용(n=67)	4.46	.68
7) 이동도움(n=57)	4.51	.76
8) 배설도움(n=54)	4.41	.77
9) 식사보조(n=71)	4.37	.74

① 성별에 따른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35>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5> 성별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t*	*p*
남자(n=55)	4.34	.61	-1.12	.26
여자(n=40)	4.49	.68		

② 학년 유형에 따른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 유형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36>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 유형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6> 학년별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t*	*p*
초등학교 이하(n=68)	4.35	0.64	-1.24	.22
중・고등학교(n=27)	4.53	0.63		

③ 장애유형에 따른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장애진단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37>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7> 장애유형별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p*
지체장애(n=19)	4.52	.54	.14
뇌병변장애(n=27)	4.58	.52	
지적장애(n=26)	4.22	.67	
자폐성장애(n=19)	4.46	.61	

④ 통합여부에 따른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합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신변처리 지원 만족

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38>과 같다.

<표 Ⅳ-38> 통합여부별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t*	*p*
통합하고 있다(n=41)	4.24	.75	-2.16	.04
통합하고 있지 않다(n=54)	4.52	.51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통합하고 있는 학생들(M=4.24, SD=.75)이 통합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M=4.52, SD=.51)에 비해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사 지원

중도장애학생들의 가사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는 <표 Ⅳ-39>와 같다.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는 전반적으로 '보통이다~매우 도움이 된다'까지 고루 분포하였다.

<표 Ⅳ-39> 가사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청소 및 주변정돈(n=21)	·	·	5	10	6
2) 세탁(n=10)	·	1	3	3	3
3) 취사(n=12)	·	·	4	5	3
4) 쇼핑(n=6)	·	·	3	1	2

중도장애학생들의 가사 지원에 관한 4가지 이용내용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40>과 같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사 지원 내용 중 청소 및 주변정돈에 대한 만족도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취사 3.92, 쇼핑 3.83, 세

탁 3.8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40> 가사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1) 청소 및 주변정돈(n=21)	4.05	.74
2) 세탁(n=10)	3.80	1.03
3) 취사(n=12)	3.92	.79
4) 쇼핑(n=6)	3.83	.98

① 성별에 따른 가사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가사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사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41>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가사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1> 성별 가사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t*	*p*
남자(n=16)	4.09	.69	.29	.78
여자(n=8)	4.00	.89		

② 학년 유형에 따른 가사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 유형에 따라 가사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사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42>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 유형에 따라 가사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2> 학년별 가사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t*	*p*
초등학교 이하(n=18)	4.00	0.75	-.71	.49
중・고등학교(n=6)	4.25	0.76		

③ 장애유형에 따른 가사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가사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장애진단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사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43>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가사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3> 장애유형별 가사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p*
지체장애(n=4)	3.38	.75	.10
뇌병변장애(n=6)	3.89	.69	
지적장애(n=7)	4.43	.53	
자폐성장애(n=5)	4.40	.89	

④ 통합여부에 따른 가사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가사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합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사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44>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가사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4> 통합여부별 가사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t*	*p*
통합하고 있다(n=8)	4.13	.83	.29	.78
통합하고 있지 않다(n=16)	4.03	.72		

3) 개인활동 지원

중도장애학생들의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는 <표 Ⅳ-45>와 같다.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는 전반적으로 '보통이다~매우 도움이 된다'까지 고루 분포하였다.

<표 Ⅳ-45>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외출 시 동행(n=86)	·	·	5	13	68
2) 일상 업무 대행(n=13)	·	1	1	5	6
3) 학교에서의 학습보조(n=17)	·	·	1	6	10
4) 학교 통학보조(n=73)	1	·	3	6	63
5) 학교에서의 이동보조(n=16)	·	·	2	4	10
6) 커뮤니케이션(n=7)	1	·	·	1	5
7) 야외문화활동(n=32)	·	·	1	4	27
8) 자기관리(n=25)	·	·	3	6	16

중도장애학생들의 개인활동 지원에 관한 8가지 이용내용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46>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인활동 지원 내용 중 야외문화활동 만족도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통학보조 4.78, 외출 시 동행 4.73, 학교에서의 학습보조 4.53, 자기관리 4.52, 학교에서의 이동보조 4.5, 커뮤니케이션 4.29, 일상 업무 대행 4.23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46>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1) 외출 시 동행(n=86)	4.73	.56
2) 일상 업무 대행(n=13)	4.23	.93
3) 학교에서의 학습보조(n=17)	4.53	.62
4) 학교 통학보조(n=73)	4.78	.65
5) 학교에서의 이동보조(n=16)	4.50	.73
6) 커뮤니케이션(n=7)	4.29	1.50
7) 야외문화활동(n=32)	4.81	.47
8) 자기관리(n=25)	4.52	.71

① 성별에 따른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47>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7> 성별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t*	*p*
남자(n=70)	4.63	.60	-1.75	.08
여자(n=39)	4.81	.44		

② 학년 유형에 따른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 유형에 따라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48>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 유형에 따라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8> 학년별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t*	*p*
초등학교 이하(n=80)	4.69	0.57	-.24	.81
중・고등학교(n=29)	4.72	0.50		

③ 장애유형에 따른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장애진단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49>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9> 장애유형별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p*
지체장애(n=19)	4.67	.58	.72
뇌병변장애(n=33)	4.78	.47	
지적장애(n=31)	4.63	.60	
자폐성장애(n=21)	4.74	.50	

④ 통합여부에 따른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합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50>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0> 통합여부별 개인활동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t*	*p*
통합하고 있다(n=50)	4.63	.62	-1.13	.26
통합하고 있지 않다(n=59)	4.75	.48		

4) 정서 지원

중도장애학생들의 정서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는 <표 Ⅳ-51>과 같다.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는 전반적으로 '보통이다~매우 도움이 된다'까지 고루 분포하였다.

<표 Ⅳ-51> 정서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말벗과 격려(n=36)	·	·	2	11	23
2) 동료상담(n=32)	·	·	2	12	18

중도장애학생들의 정서 지원에 관한 2가지 이용내용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52>와 같으며, 정서 지원 내용 중 말벗과 격려 4.58, 동료상담 4.50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2> 정서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1) 말벗과 격려(n=36)	4.58	.60
2) 동료상담(n=32)	4.50	.62

① 성별에 따른 정서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정서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서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53>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정서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3> 성별 정서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t*	*p*
남자(n=29)	4.41	.67	-1.83	.07
여자(n=16)	4.72	.45		

② 학년 유형에 따른 정서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 유형에 따라 정서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서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54>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 유형에 따라 정서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4> 학년별 정서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t*	*p*
초등학교 이하(n=30)	4.52	0.66	-.08	.93
중・고등학교(n=15)	4.53	0.52		

③ 장애유형에 따른 정서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정서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장애진단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서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55>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정서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5> 장애유형별 정서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p*
지체장애(n=10)	4.40	.70	.47
뇌병변장애(n=11)	4.77	.41	
지적장애(n=14)	4.54	.63	
자폐성장애(n=8)	4.38	.74	

④ 통합여부에 따른 정서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정서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합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서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56>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정서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6> 통합여부별 정서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t*	*p*
통합하고 있다(n=22)	4.50	.72	-.24	.81
통합하고 있지 않다(n=23)	4.54	.50		

5) 기타 제공 서비스

중도장애학생들의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는 <표 Ⅳ-57>과 같

다.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는 전반적으로 '보통이다~매우 도움이 된다'까지 고루 분포하였다.

<표 Ⅳ-57>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 응답 빈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시간 및 일정관리(n=8)	·	·	2	3	3
2) 금전관리(n=5)	·	·	2	1	2
3) 기기사용(n=8)	·	·	2	2	4

중도장애학생들의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에 관한 3가지 이용내용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58>과 같다.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내용 중 기기사용 4.25, 시간 및 일정관리 4.13, 금전관리 4.00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58> 기타 제공 서비스 만족도 현황

변인	M	SD
1) 시간 및 일정관리(n=8)	4.13	.83
2) 금전관리(n=5)	4.00	1.00
3) 기기사용(n=8)	4.25	.89

① 성별에 따른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59>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9> 성별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t*	*p*
남자(n=7)	4.29	.76	.69	.50
여자(n=5)	3.93	1.01		

② 학년 유형에 따른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 유형에 따라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60>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 유형에 따라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0> 학년별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t*	*p*
초등학교 이하(n=9)	4.19	0.85	.31	.76
중・고등학교(n=3)	4.00	1.00		

③ 장애유형에 따른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장애진단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61>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1> 장애유형별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p*
지체장애(n=3)	3.56	.51	.52
뇌병변장애(n=2)	4.50	.71	
지적장애(n=3)	4.00	1.00	
자폐성장애(n=4)	4.50	1.00	

④ 통합여부에 따른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 차이 비교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합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62>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2> 통합여부별 정서 지원 만족도 현황

	M	SD	*t*	*p*
통합하고 있다(n=8)	4.08	.85	-.31	.76
통합하고 있지 않다(n=4)	4.25	.96		

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중도장애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활동보조서비스 수급현황, 활동보조서비스 내용별(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여러 가지 변인별(성별, 학년, 장애유형, 통합여부 등)로 분석하여 중도장애학생의 활동보조서비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 중 조사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수행되었으며,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중도장애 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2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2010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를 기초로 연구자가 조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증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연구문제별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중도장애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활동보조서비스 수급현황

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장애학생들의 성별은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조용호(2009)의 연구와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김미자(2008), 이광범(2008), 박구휘(2009)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며, 여자보다 남자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중인 중도장애학생들의 연령은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 고루 분포한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미자(2008)와 조용호(2009)의 연구에서는 40~50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된 초기 2~3년 동안에는 성인의 자립생활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며, 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령기 장애학생을 위

한 지원을 특성화하고 체계화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진단명으로는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순으로 응답한 반면 김미자(2008)와 박구휘(2009)의 연구에서는 주로 지체장애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것으로 지체, 뇌병변, 자폐성, 지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장애학생들의 장애등급은 1급이 117명, 2급이 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올해부터 정부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1급 장애인으로만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장애등급이 1급인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장애인신문, 2010).

중도장애학생들은 평균적으로 3세 5개월(42개월)에 장애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광범(2008)의 연구에서는 8세 이하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장애등록으로 인한 혜택 인지가 많이 향상됨에 따라 장애진단시기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중도장애학생들의 학년은 초등학교에 재학/졸업, 중학교 재학/졸업, 무학(미취학 포함), 고등학교 재학/졸업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한 이광범(2008)의 연구에서는 고졸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학령기 아동일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재학/졸업한 학생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요구한 반면 전체 연령일 경우에는 고졸 이상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선호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통합하고 있는 학생이 52명, 통합하지 않고 있는 학생이 6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역시 대상 학생이 늘어나고 중도·중복장애의 비율이 확대되어 활동보조 등 관련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연령(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김길권(2008), 박구휘(2009)의 연구와 일치하며 주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계기로 본인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용호(2009)의 연구와 일치하며 서비

스 이용자가 스스로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4년 9개월까지 고루 분포하였는데, 평균 1년 6개월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광범(2008)의 연구에서는 6개월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조용호(2009)의 경우 평균 12개월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용자와 이용기간이 점점 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은 월 60시간, 주 5회, 1회 이용시간은 3~4시간 이하가 가장 많은 반면 전체 연령(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광범(2008)은 월 평균 80시간, 주 평균 5회, 1회 평균 4~5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활동보조 서비스가 중도장애학생의 경우에 3·4등급(40시간~60시간) 범위에서만 지원되도록 한정하였으므로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광범(2008)의 연구보다 평균 이용시간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장소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집과 병원(치료실) 등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 대부분 맞벌이인 경우가 많아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과 방과 후 장애학생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활동보조서비스 내용별 이용현황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내용별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변처리 지원 내용 중에서는 옷 갈아입히기와 화장실 이용, 가사 지원 내용 중에서는 서비스 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청소 및 주변정돈, 개인활동 지원 내용 중에서는 외출 시 동행과 학교 통학보조를 가장 많이 이용한 반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용호(2009)의 연구에서는 가사활동보조와 외출보조서비스(병원 및 약국)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보조를 가장 낮게 이용하고 있었다. 정서 지원 내용 중에서는 말벗과 격려,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내용 중에서는 시간

및 일정관리, 기기사용 등의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김길권(2008)과 조용호(2009)의 연구에서는 집안일에 대한 생활의 변화가 높았으며, 외모에 대한 자신감, 의사소통원활 등 정신적인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비교한 김한나(2009)의 연구를 보면 농어촌지역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폭이 좁아 대부분이 가사지원에 몰려있으며 나머지 도움은 미약하다고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가 만 6세~만 18세 미만의 중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성인에 비해 교육과 정서지원(말벗과 격려), 시간 및 일정관리, 기기(컴퓨터, 전화) 등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장애유형, 통합여부 등의 변인과 활동보조서비스 내용(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별 이용현황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광범(2008)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학력, 장애등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 집단이 중졸이상 집단보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며, 조사대상자의 장애등급이 1급인 집단이 2급인 집단보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경우 학령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이광범(2008)의 연구는 학령기와 성인을 포함한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활동보조서비스 내용별 만족도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신변처리 지원에서는 이동도움에 대한 만족도, 가사 지원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방 청소(주변정돈)에 대한 만족도, 개인활동 지원에서는 야외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 정서 지원에서는 말벗과 격려에 대한 만족도,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중에서는 기기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제공주체, 이용자의 권리의식정도, 활동보조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개별적 외부지원여부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양희택, 2007).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장애유형, 통합여부 등의 변인과 활동보조서비스 내용(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별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광범(2008)의 연구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성별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여부에 따른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를 살펴보면, 통합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통합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중도장애학생들의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기타 서비스 지원 등의 서비스 정책에 대한 지원과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 및 향후 관련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결론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장애학생들 중 남자는 77명, 여자는 44명으로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 고루 분포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나이는 11세이다. 장애진단명으로는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1급이 117명, 2급이 4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진단시기는 평균적으로 3세 5개월에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에 재학/졸업한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통합하고 있는 학생이 52명, 통합하지 않고 있는 학생이 69명으로 나타났다.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수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중도장애학생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본인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4년 9개월까지 고루 분포하였으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월 60시간, 주 5회, 1회 3~4시간 이하로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집과 병원(치료실) 등의 장소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보조서비스 중에서 신변처리 지원과 개인활동 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내용별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변처리 지원 내용 중에서는 옷 갈아입히기와 화장실 이용, 가사 지원 내용 중에서는 서비스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청소(주변정돈)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활동

지원 내용 중에서는 외출 시 동행과 학교 통학보조, 정서 지원 내용 중에서는 말벗과 격려,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 내용 중에서는 시간·일정관리, 기기사용 등의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 학년, 장애유형, 통합여부 등의 변인과 활동보조서비스 내용(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도장애학생들의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신변처리 지원에서는 이동도움, 가사 지원에서는 청소(주변정돈), 개인활동 지원에서는 야외문화활동, 정서 지원에서는 말벗과 격려,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에서는 기기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 학년, 장애유형, 통합여부 등의 변인과 활동보조서비스 내용(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기타 제공 서비스 지원)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중도장애학생들의 통합여부에 따라 신변처리 지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활동보조서비스가 성인의 자립생활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학령기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을 특성화하고 체계화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활동보조서비스가 1급 장애인으로만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월 최대 이용시간을 100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도장애학생들도 일부 영역에서는 성인보다 더 많은 욕구가 있지만 3·4등급(40시간~60시간) 범위에서만 지원되도록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 표집된 학생의 구성은 경기도에 소재한 9곳의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한정된 인원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중도장애학생에게 일반화하지 못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고은호 (200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탐라대학교 경영·사회복지대학원, 제주.

국립재활원 (2010). **2010년 활동보조인 기본교육 교재.** 서울: 국립재활원.

권다진 (2010).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전주.

김길권 (200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서울.

김미자 (2008).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따른 자립생활욕구·생활 불편감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대학원, 순천.

김민아 (2007). **지체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지각된 자립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김한나 (2009). **도시와 농어촌지역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대구.

김희경 (2008).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대전.

노언희 (2008). **장애인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서울.

박구휘 (2009).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서울.

보건복지부 (2007). **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2010). **2010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신경숙 (2006). **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인 및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신경식(201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울산.

양희택 (2007).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유시영 (2008).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서울.

윤두선 (2007).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중증장애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서울.

이광범 (2008).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만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이기윤 (2007).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삼식 (2009).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용인.

이소현 (1997). **"중도장애아 교육가능성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 『제4회 이화특수교육학술 대회: 중도장애아 교육의 기초와 방법론』, (pp. 3~7).**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이슬기 (2008).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이 사회활동참여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대전.

이용화 (2008).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임지선 (2009).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유동철 (2009).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파주: 집문당.

정병문 (2008).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나주.

정중규 (200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천안.

조용호 (2009).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광주.

최지희 (2010).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생존권'이다!**(http://www.welfarenews.net/news/news_view.html?bcode=23496)

한선덕 (2009). **중증장애인이 지각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수준이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홍은희 (2007).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34 C.F.R. (1998). PART 315: Program for children with severe disabilities(Eff. until Oct. 1, 1998), U.S.

Lindley, L. (1990, August). Defining TASH:A mission statement. TASH Newsletter, 16(8), 1.

Rues, J.P., Ault, M.M., Graff, J.C., & Holvoet, J.F. (2006).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s. In M.E.Snell & F.Brown (Eds.), Instruction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Slaton, D.E., Schuster, J., Collins, B., & Carnine, D. (1994). A functional approach to academic instruction. In E. Cipani & F. Spooner (Eds.), Curricular and instructional approaches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pp. 149-183). Boston: Allyn & Bacon.

부록1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사과정 김아미입니다.

본 설문지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 학생들에게 미치는 성과를 알아보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각각의 지시문에 따라 순서대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기록되어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사적 정보도 절대 공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 03.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김아미 드림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해당 되는 번호를 골라 (　　)안에 "√"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 부모의 기초사항

성별	① 남(　　)　② 여(　　)
연령	① 20대 이하(　　)　② 20대(　　)　③ 30대(　　) ④ 40대(　　)　⑤ 50대(　　)　⑥ 60대 이상(　　)
직업유무	① 없다(　　)　② 시간제 근무(　　)　③ 종일근무(　　)
가구의 월평균 수입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　　)
가사조력자	① 없다(　　)　② 가사도우미(　　)　③ 외가/친가 부모(　　) ④ 친척(　　)　⑤ 기타(　　)
자녀 수	남(　　)명, 여(　　)명
수급여부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② 국민기초생활 비수급권자(　　)

▷ 아동의 기초사항

성별	① 남(　　)　② 여(　　)
연령	만 _____세
진단명	(　　)장애　＊ 아래 장애유형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등급	① 1급(　　)　② 2급(　　)　③ 기타(　　급)
장애진단시기	(　　)세 (　　)개월
학력	① 무학-미취학포함(　　)　② 초등학교 재학/졸업(　　) ③ 중학교 재학/졸업(　　)　④ 고등학교 재학/졸업(　　) ⑤ 기타(　　)
통합여부	① 통합하고 있다(　　)　② 통합하고 있지 않다(　　)
※ 장애유형 ※ ①지체장애 ②뇌병변장애 ③시각장애 ④청각장애 ⑤언어장애 ⑥지적장애 ⑦자폐성장애 ⑧정신장애 ⑨신장장애 ⑩심장장애 ⑪호흡기장애 ⑫간장애 ⑬안면장애 ⑭장루・요루장애 ⑮간질장애	

※ 귀하께서 현재 받고 계신 활동보조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 )안에 "√"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1.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① 자립생활센터( ) ② 복지관( ) ③ 자립후견기관( )
   ④ 동사무소( ) ⑤ 기타( )

2.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본인의 필요에 의해( )
   ② TV 방송, 신문 등을 통해( )
   ③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통해( )
   ④ 가족 및 주변 지인의 소개( )
   ⑤ 지역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
   ⑥ 기타( )

3. 현재까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년 ( )개월

4.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간은 **월 몇 시간**입니까?
   ① 20시간( ) ② 40시간( ) ③ 60시간( )
   ④ 80시간( ) ⑤ 81~180시간 이하( ) ⑥ 181시간 이상( )

5. 활동보조서비스는 **일주일에 평균 몇 회**를 이용하십니까?
   ① 주1회( ) ② 주2회( ) ③ 주3회( )
   ④ 주4회( ) ⑤ 주5회( ) ⑥ 주5회 초과( )

6.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시 **1회 평균 이용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시간 이하( ) ② 1~2시간 이하( ) ③ 3~4시간 이하( )
   ④ 5~7시간 이하( ) ⑤ 8시간 이상( )

7.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집( ) ② 학교( ) ③ 병원-치료실( ) ④ 기타( )

※ 다음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내용 중 **신변처리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받고 계신 활동보조서비스 항목의 실행여부와 만족도에 "✓"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서비스 항목	세부내용	실행 여부	만족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사용 물품 정리	(　)	①	②	③	④	⑤
2)세면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얼굴・목・손 씻기, 사용물품 정리 등,	(　)	①	②	③	④	⑤
3)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	①	②	③	④	⑤
4)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	①	②	③	④	⑤
5)신체기능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	(　)	①	②	③	④	⑤
6)화장실이용	화장실 이동보조, 옷 내려 주고 올리기, 용변 후 처리	(　)	①	②	③	④	⑤
7)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또는 지켜보기, 보행도움	(　)	①	②	③	④	⑤
8)배설도움	배뇨도움, 배변도움, 지켜보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①	②	③	④	⑤
9)식사보조	식사도움, 지켜보기, 사용방법 지도	(　)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내용 중 **가사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받고 계신 활동보조서비스 항목의 실행여부와 만족도에 "✓"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서비스 항목	세부내용	실행 여부	만족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0)청소 (주변정돈)	서비스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　)	①	②	③	④	⑤
11)세탁	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　)	①	②	③	④	⑤
12)취사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	①	②	③	④	⑤
13)쇼핑	생필품 구매, 식료품 구매	(　)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내용 중 **개인활동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받고 계신 활동보조서비스 항목의 실행여부와 만족도에 "√"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서비스 항목	세부내용	실행 여부	만족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4)외출 시 동행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	①	②	③	④	⑤
15)일상 업무 대행	대상자 대신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 )	①	②	③	④	⑤
16)학교에서의 학습보조	수업시간 중 학습 보조	( )	①	②	③	④	⑤
17)학교 통학보조	통학(학교 등·하교) 보조	( )	①	②	③	④	⑤
18)학교에서의 이동보조	수업시간 중 이동 보조	( )	①	②	③	④	⑤
19)커뮤니케이션	낭독 보조, 대필 보조	( )	①	②	③	④	⑤
20)야외문화활동	문화, 스포츠, 여가활동 보조	( )	①	②	③	④	⑤
21)자기관리	몸단장	( )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내용 중 **정서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받고 계신 활동보조서비스 항목의 실행여부와 만족도에 "√"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서비스 항목	세부내용	실행 여부	만족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22)말벗과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및 위로	( )	①	②	③	④	⑤
23)동료상담	학교생활의 문제 등을 상담 및 조언	( )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내용 중 **기타 제공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받고 계신 활동보조서비스 항목의 실행여부와 만족도에 "✓"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서비스 항목	세부내용	실행 여부	만족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24)시간・일정관리	시간표 작성, 다이어리 작성	(　　)	①	②	③	④	⑤
25)금전관리	용돈기입장 작성 및 지도	(　　)	①	②	③	④	⑤
26)기기사용	전화사용, 컴퓨터사용 방법 지도	(　　)	①	②	③	④	⑤

※ 귀하께서 앞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제공받고 싶은 활동보조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 안에 10가지만 "✓"를 표시해주세요.

서비스 항목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서비스 항목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1) 목욕도움	(　　)	14) 외출 시 동행	(　　)
2) 세면도움	(　　)	15) 일상 업무 대행	(　　)
3) 옷 갈아입히기	(　　)	16) 학교에서의 학습보조	(　　)
4) 체위변경	(　　)	17) 학교 통학보조	(　　)
5) 신체기능 유지・증진	(　　)	18) 학교에서의 이동보조	(　　)
6) 화장실 이용	(　　)	19) 커뮤니케이션 보조	(　　)
7) 이동도움	(　　)	20) 야외문화활동	(　　)
8) 배설도움	(　　)	21) 자기관리	(　　)
9) 식사보조	(　　)	22) 말벗과 격려	(　　)
10) 청소(주변정돈)	(　　)	23) 동료상담	(　　)
11) 세탁	(　　)	24) 시간・일정관리	(　　)
12) 취사	(　　)	25) 금전관리	(　　)
13) 쇼핑	(　　)	26) 기기사용	(　　)

부록2

1) S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담당자와의 면담

연구자 :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고,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 : S자립생활센터의 ○○○입니다. 아.. 그러니까 활동보조 사업을 하면서 여러 애로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요. 그중에 뭐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제 이용자분들이 이제 뭐.. 이동이라던가 뭐.. 이제 중증이다 보니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앉거나 업거나 해서 뭐.. 차에 태우고 아니면 계단 오르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활동보조인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남자분 보다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이 딸리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남자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남자분들은 많이들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연구자 : 보통 활동보조인을 신청하시는 여성분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S : 거의 주부님들이 많이 하셔요. 거의가 40~50대이시고, 30대이신 분은 몇 명밖에 안되시고, 거의 40~50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가장 문제가 저희가 또 난관에 부딪치는 부분이 대부분 이동이.. 일단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반차량을 이용해서 이용해야 하는데, 이제 모.. 활동보조인이 차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연구자 : 아! 개인차량이요?

S : 네. 그런데 저기.. 여기 사업지침자체가 차량운행은 안되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건 때문에 뭐 이것을 활동보조인이 책임을 지도록 전가를 시키면 너무 큰 저기가 되고, 그렇다고 이용자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저희도 기관에서 물론 하면 좋은데 기관도 역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아예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있으니까 차량운행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되어 있는데 이제 상황은 일단 1급 장애인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이나 뭐 그런 것을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연구자 : 이용자분이 활동보조인분들께 바라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S : 이용자분이 활동보조인분들께 바라는 서비스가요? 주로 이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뭐..뭐.. 집이라던가, 아니면 물리치료라던가. 언어치료. 치료를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동에 관련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많이 하세요.

연구자 : 그러면 현재 이동케어를 많이 요구하신다고 했는데, 이동시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S :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 가족의 차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가족은 아무래도 생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게 되면 가족분이 그.. 아동한테 메여서 생활하다보면 다른 일상생활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활동보조인을 어.. 신청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연구자 : 그러면 이곳에서는 가장 필요로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이동보조인가요?

S :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난관에 부딪치는 부분이 그 부분이구요. 다른 부분으로는 가사도 있고요. 목욕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연구자 : 그러면 학생입장에서 부모님들이 학습보조를 원하실 수 있잖아요.

S : 그런 부모님은 저희 이용자분들 중에는 크게는 많이 있지는 않아요. 주로 아동은 이동. 재활치료가고 통학하고 이런 부분..

연구자 : 그러면 만약에 통학보조를 해준다면 활동보조인이 학교에 같이 가서 학습보조를 해주시지는 않나요?

S : 그거까지는 시간이 만약에 그게 포함이 된다면, 만일 받은 시간이 많이 되어서 시간이 그게.. 할애가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시간이 그렇지 않으면 이동만이라도, 가장 필요한 거는 이동이니까 일단은 이동을 해야지만 할 수 있어야지만 학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문제잖아요.

연구자 : 지금까지는 어려운 점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운영자입장에서 활동보조서비스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S : 제도상의 문제점. 어.. 얘길 하자면 많죠. 일단은 시간 같은 것도, 시간도 좀.. 좀 더 많이. 사실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니까 원래 예를 들어 100시간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100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분은 안 되는, 더 많은 시간이.. 더 많은 활동보조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음.. 뭐.. 보면은 자부담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것도 이제 뭐.. 좀 형편이 조금 넉넉한 분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대부분 장애인 가족 같은 경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예 수급자이신 분들은 전액 정부지원해주지만 이용부담금이 올해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그 부분에서 부담이 되시는 부분들도 계시고요.

연구자 : 감사합니다.

2) A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담당자와의 면담

연구자 : 간단한 자기소개 일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저는 A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이용자하고 활동보조원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코디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름은 ○○○이구요. 그리고 한 2년 반 됐나. 그 정도 일하고 있고요. 저도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연구자 : 그러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일단 이용자하고 활동보조인 간에 어.. 뭐죠. 분쟁같은게 있잖아요.

연구자 : 네.

A : 그런게 많이 중간 역할 하기가 조금 힘든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하고 또 그걸 충족하지 못하게 해주는 또 활동보조인들의 개인사정도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올해 들어서 많이 등급을 받기가 많이 힘들어 졌잖아요. 활동보조 받기가. 그게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2급 되신 분들, 다들 서비스 받으신다고, 왜 ○○은 안 되냐. 이런 항의전화가 많이 오시고 있어요.

연구자 : 활동보조인 분들은 서비스를 하시는 입장에서 무슨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A : 활동보조인 분들이요? 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교육을 받잖아요. 받는 거나 실제적으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 하다보니까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사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어.. 나는 내가 파출부도 아닌데 이런 가사를 다 해야 되느냐. 교육받을 때에는 활동보조인이지 어.. 가사도우미처럼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원하더라. 활동보조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못하는 것을 부탁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요청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것이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장애아이들. 장애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적장애아동들도 있지만, 지체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원을 못 다니잖아요. 방과 후 숙제라던가, 일반 아이들은 많이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학원을 못 다니니까 집에서 대학생 활동보조를 통해서 학습보조를 원하시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어.. 그런 학습보조가 활동보조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물론 방학동안 학습보조 위주로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어.. 완전히 가정교사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지침에서 맞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저희가 연계할 때에는 그냥 학습보조 그러니까 학생이 글시 쓰거나 컴퓨터로 뭐 찾지 못하니까 도와주는 걸로 하지만은 어.. 그런 학생들이 많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연구자 : 그러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 음.. 일단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 많이 다니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우.,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빠지기도 하고, 통합반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고 수준에까지는 학교를 못가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엄마들이.. 어느 정도 까지만 지금 이게.. 이끌 수 있는 학습지도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연구자 : 원하시는 경우는 많은데, 그럼 그렇게 다 지원을 나가는 상황인지?

A : 없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요. 활동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거짐 40~50 주부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과정을 이렇게 엄마들이 만족하게끔 이렇게 보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원하시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세요.

연구자 :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많이 알고 오세요. 활동보조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일자리가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들 홍보를..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애 돌보는 일 있다면서요. 이렇게 문의 전화가 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하면은 아 그러냐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분들도 있고, 일단 해보겠다는 분들도 있지만은 활동보조에 대한 인식을 아직까지 잘 모르세요. 주부들은 그냥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자 : 활동보조서비스를 나가기 전에 받는 연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 일단 저희가 교육추천서를 작성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수원이 어디죠? 동부인가 서부인가? 북부죠. 북부 쪽에서 경기도 지방에 있는 분들을 다 받아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요.

연구자 : 그러면 실제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까지..?

A : 실습은 있어요. 하실 수 있긴 한데, 어.. 그렇게까지 모랄까 석션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공호흡 그런 거.. 또 관장 이런 걸 실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까지.. 이론적으로 많이 치우쳐있죠. 활동보조가 다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간병일을 하셔도 안 되고요. 보조교사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집에 가서 아이들 학습 보조를 한다는 게 어. 어떻게 보면 이런게 가정교사나 역할을 침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 상으로 안 되는 거지만, 어떤 상황일 경우에는 그게 꼭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침상의 그런 변화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 제가 알기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때 욕구조사에 학습성취욕구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A : 그러니까 뭐랄까. 그게요. 보조적으로 아이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가르치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얘가 활동보조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역할이니까. 선생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원하는 역할은 그게 아니니까. 학생들은 많이 원하고요.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자 : 감사합니다.

3) A장애인복지관 담당자와의 면담

연구자 : 간단히 자기소개해주시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A : A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보조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입니다. 1급 장애인 아동들이 대부분 다 중증장애인이예요. 지적장애, 발달장애가 대부분이여서,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기능적인 부분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아예 없다라고 단정하긴 그렇지만 보통 그런 학습적인 교육을 받기는 좀 어려운...

연구자 :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때 욕구조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애학생들에 대한 욕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A :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1급 장애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질문 자체를 이해자체도 어렵고 또 누구 하나가 맨투맨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더라도 그 질문을 이해하고 작성하기에는 어렵죠.

연구자 : 그러면 장애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필요로 하시나요?

A : 그거는 이제 등하교 하는 부분. 치료실이나, 학교. 특수학교나 등하교 하는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놀아 주는 것, 그담에 이제 책 읽어주고, 그담에 학교에서 그런 신변처리 같은 것들을 도움을 주는 것 이렇게.

연구자 : 그러면 학교를 못가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음으로서 자기.. 자기자식한테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욕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없나요?

A :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현재 활동보조인 그런 자격 조건이 어떠한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 60시간 수료만 하면 현재는 40시간으로 바꼈구요. 수료만 하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활동보조인들이 주부님들이예요.

연구자 : 네. 그러면 교육 수료는 이론하고 실습하고 같이 포함된 건가요?

A : 이론이 40시간이면 실습은 한 10시간 정도. 그거 밖에 안돼서.

연구자 : 많이 부족하네요.

A : 네. 이게 포커스가 성인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자립자활이 우선이잖아요.

연구자 : 네.

A : 그래서 아직 아동들한테 그러한 내용들이 자체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연구자 : 많이 부족하구요.

A : 부모님들도 솔직히 이 아이가 치료를 받는 학습을 진행해주어야 하는데,

이 아이에게 국어를 가르친다. 수학을 가르친다. 영어를 가르친다. 불가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지능에 정신 쪽에 문제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대부분 아동. 지적장애 아니면 발달장애로 활동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3D 쪽에서 많은 학습지원이 가능하겠죠.

연구자 : 활동보조서비스를 나가시는 활동보조인들과 이용자 간에 마찰은 없나요?

A :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때문에 그 아동과 직접 부딪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호자나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이 대신. 활동보조인이 가사서비스에도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동입장에서는 다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동에게는 가사서비스 할 나이가 못되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아이영역이 아닌데, 3자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떠한 그런 서비스를 받아도 등하교를 받아도 시간이 남으니까 이 때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안 돼는 거죠. 이쪽에서는 해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된다.

연구자 : 네. 알겠습니다. 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G장애인복지관 담당자와의 면담

연구자 :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G : G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보조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 사회복지사입니다.

연구자 : 시행하는 입장에서 생겼던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G : 일단 저는 활동보조를 아직 1년 동안, 1년도 안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도 안되었는데, 지금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활동보조사업이 처음 시행되면서 취지는 좋았지만 조금 장애인분들한테 조금 더 의존하는 성향을 갖게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활동보조의 원래 목적은 사회참여나 자활인데, 그 활동보조인하고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가, 활동보조인들을 개인비서나 파출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사업 시행 이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 이용 장애인분들을 조금 모셔놓고 사업설명회라던지..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저희 쪽도 하반기 쪽으로는 이용자 교육 쪽으로 조금 많이 좀 관심을 가져서 활동보조 사업이 제대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취지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 네. 그러면 보통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때, 이용자교육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건가요?

G : 일단 계약 할 때 이용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조금 워낙 이용자 분들이 많다보니까 초기에는 인력도 없었고, 그래서 계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규이용자 분들이 계셨을 때는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용자교육하고, 이용자 교육을 하더라도 그게 또 이용자분이 이게 활동보조사업 취지가 이용자 분의 권리보장이기 때문에, 이용자분의 권리에 너무 맞춰서 치우쳐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또 이용자분들의 권리가 당연히 조금 강화되는 게 맞는데 조금은 그런 교육이라던지.. 이런 걸 통해서 이용자들이 조금 올바르게 사업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연구자 : 활동보조서비스를 나가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만족하고 계시나요?

G : 일단은 지금 급여부분에서 당연히 불만족이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용자분들의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4대보험이라던지, 이런 건 다 들어놓고 있는데 솔직히 그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수당 같은 거는 저희가 제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급여부분에서 불만족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용자 분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조금 고충상담이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연구자 : 이곳에서는 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나가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G : 일단은 50대가 가장 많으시고요, 40대, 50대, 60대가 주를 이루는.. 특히 모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이용자 분하고 같이 행동을 할 때 버스비라든지 요런 부분 이용자분이 부담하게끔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약한 활동보조인분들은 또 본인 교통비로 이동을 하시고 계속 그러시다 보니까 본인도 불만이 쌓이죠. 그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이용자분들은 더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연구자 : 장애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실 때 어떤 케어를 집중적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지?

G : 일단 학교나 뭐 치료, 교육센터 같은 이동지원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많이 차이가 나시잖아요. 아동이랑. 일단은 어머님도 어머님 나름대로 시간을 갖으셔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부모 휴식 비슷하게 활동보조인 분들이 주말도 있고,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외출지원도 하고, 특히나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오실 때까지 그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조금 돌봐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자 : 그러면 보통 이동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데요, 그러면 차량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G : 저희 같은 경우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활동보조인 분들께서 배상책임 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을 다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자세히 알아보니까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든지 또 혹

시나 모르는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량 자차 운행을 조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비 같은 거 발생할 때에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제 지하철 같은 거는 괜찮은데 대중교통 같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교통카드를 활동보조인 선생님들한테 이제 조금 지급, 만들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차를 이용하게 되면 또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를 시행하면서 까는 식으로 해서 유류비를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또 사업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 그러면 현재 시행중인 활동보조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 : 일단은 제도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업대상이 선정이 되면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그 이제 이용자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이제 한 가지 기능별 틀에 맞춰서 신체 기능별 틀에 맞춰서 이렇게 그 활동보조 시간 급수를 정하는데 그거는 조금 안 맞고,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별로 이렇게 받을 어려움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장애별로 이렇게 진단 판정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활동보조 사업이 잘 시행이 되면 유용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하면 그 활동보조인이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또 이용자가 올바르게 이렇게 활동보조 사업을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적으로 너무 관리하기에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수급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기관 쪽으로 다 그 부담을 기관 쪽으로 넘기면 그런 식으로 되니까,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죠.

연구자 : 네. 감사합니다.

5) AA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담당자와의 면담

연구자 :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AA : 그런 것 같아요. ○○라는 학생을 가서 봤을 때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기다가 침 흘리고 그러니까 지체까지 같이 있는 중도장애.. 중도장애인데, 그 친구가 우리 선생님들을 투입했을 때 어머니가 바라는 욕구 그 아이가 바라는 욕구 할머니가 바라는 욕구가 다 틀려. 그러면 활동보조 선생님이 어떻게 그것을 케어 해나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누구의 욕구에 맞추느냐.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체가 심한 거예요. 그런 욕구가 여러 가지가 되면 각 욕구가 틀려지면 활동보조 선생님이 어느 포커스에 맞추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코디네이터가 그거를 잡아나가야 해요. 개입시점을 잘 보고 일단은 초기면접이나 그 외의

어떤 불만사항이 있을 때 한 번 더 나가가지고 그 불만사항을 듣고 아이의 욕구와 어머니의 욕구가 틀렸을 시 그거를 어느 정도는 복합적으로 가야해요. 어머니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 아이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느려져요. 그러려면. 학습 같은 게 그 친구는 인지 능력도 떨어져 또 활동하는 것도 장애가 있으니까 떨어져 그런데 어머니는 빠르게 되기를 바라서. 그런데 그 아이는 노는 것을 더 원해 공부보다도 그랬을 때 이걸 놀이를 어떻게 공부에 적합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진..진행을 시키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요번에 그래서 들어가신 분이 학원 원장이셨던 분이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못하시게 되어 학원을 관두시게 되고 활동보조를 자원봉사 쪽으로 생각하셨다가 너무나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투입을 시켜드렸어 그런데 잘하시고 계셔 100까지 쓰는데 다른 분들은 한 달 걸릴 것을 이분은 보름 만에 진행을 시킨 거야. 그런데 부모님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들.. 그런 예들이 활동보조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연구자 : 그 밖에 이용자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없나요? 이용시간이나, 자부담 비용이나..

AA : 저희는 작년까지는 60시간 이였고, 올해는 40시간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어.. 자기부담금도 5만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2만원이 국고보조, 3만원이 자부담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이 국고보조, 5만원이 자부담 이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부담이 커지는데 사실 이것을 수료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격증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제약을 둘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너무 어.. 그러니까 이 선이 없어요. 수료증이라고 하니까 너무 선이 없고 따 놓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고. 국고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면접을 되게 철저히 봐요. 저는. 봐가지고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면접을 하도 세게 봐가지고. 활동보조는 어차피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장애인 분들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없으면 이 일을 하시면 안 돼. 이 일을 돈이나 이런 걸로 자기 생활의 방편으로 삼고하신다면 저는 말려요. 왜냐하면 장애인 분들이 그렇게 안 되는 돈을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들이 이용자한테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것을 떠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되도록이면 골라요. 그런데 그렇게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분들을 먼저 생각해서 이용자들을 만나게 해주죠. 매칭을. 그런데 어떤 목적의식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돈이 안 될 때에는 그것이 이용자한테 불이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면접을 소명의식과 봉사정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을 확

신시켜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나서 겁이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전화가 와요. 나중에 제가 다시 생각해가지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사실은 가장 문제예요. 와상환자하고 어린 아이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지적인 것이 아니면 괜찮아.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어서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얼마든지 옆에서 케어를 하고 업어서라도 데려도 가고 이렇지만. 이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 지적인 부분이 또 자폐 요런 친구들이 있을 때에는 참 문제가.. 자폐 친구들은 천재적 자폐들은 좀 덜해요. 자기가 집중력을 갖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침묵적인 아이들 그 다음에 폭식적인 아이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아이들은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여자선생님들은 요런 쪽으로 잘 못 매칭을 해.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있기도 하면서 지적인 부분 아이들 그런 아이들 보면 부모의 욕구는 굉장히 왕성해. 우리 아이는 꼭 나..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건 아니거든요. 냉철하게 봤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빠르게는 못한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을 보고 하셔야 될 일들을 내일 아침이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의 욕구 이런 것들을 보면 가슴 아프죠. 저는 매칭을 선생님들이 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가요. 먼저 상황을 보러 나가요. 이 아이는 어떤 상태이고 어떤 걸 원하고 또 어떤 선생님이 맞을 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자가 60명에 우리 활보선생님 44명인데 이름을 다 외워요. 외우고 누가 누구와 매칭 되어 있고 상태가 어떤지 다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을 정말 아낄 수가 없어요. 또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전화가 왔어요.. 불만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누군지를 모르면 또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그 분이 말하시는게 짜증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해. 그 분을 나가서 상황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또 나가서 봐야해. 그러니까 시간적인 낭비가 되고 인력낭비가 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입력을 다 시켜놓아야 해. 그래야지 전화가 딱 왔을 때 불만사항이 있을 때 아!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을 수도 있다. 아! 이분은 조금 선생님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답이 딱딱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왕좌왕하게 되면 이용자도 우왕좌왕 하게 되고 선생님도 우왕좌왕하게 되요. 사회복지사는 철저한 관리죠. 중재자이기 전에 철저한 관리자. 두 사람을 관리를 안 해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내 이 신뢰의 끈을 돈독하게 하는 건 사회복지사가 전적으로 개입이 되어있어야 해요. 두 사람의 끈이 강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한 순간에 끊어져 버려요. 그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했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한 가지만 안 해줘도 금세 끈이 녹아버려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개입된 끈들은 불만사항들이 나한테 오니까. 나한테 오니까 그 신뢰의 끈은 끊어질 레야 끊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개입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내가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우리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지 이용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던지.. 원칙적인 것이 안됐을 때 아 그러면 이 분은 다른 기관을 알아보게 하는 것도 좋다. 우리 쪽에서 꼭 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더 좋은 서비스 이 분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드리려면 다른 기관 쪽에서 해주는 것도 좋다.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해.

연구자 : 그러면 장애아동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서비스는?

AA : 학습보조죠. 학습보조. 아이들 입장에서는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머리가 좋다 고해서 신체적인 부분이 안 좋으면은 영향은 받아요. 그것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들이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자꾸만 선생님들을 젊은 선생님들을 청하고 또 대학교 나오신 분들을 청하고 이로는 것들이 좀 저기를 하는 거야. 그 학습보조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자폐 쪽은 그.. 자폐 쪽은 진척이 없어. 가르쳐도. 그러니까 어.. 보살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어머니가.. 자폐 쪽은 길을 가다 차도로 막 뛰어들고 그래.. 그리고 자기를 막 자학하는 애들은 주먹으로 막 때리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하려면 힘 있는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의 무엇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 학습은 못하더라도 장애가 좀 완화가 돼서 좀 유순해 질 수 있는 좀 어.. 사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그런 것들을 원하시더라고요 자폐 쪽은. 그런데... 좀 학습.. 지적이나 신체 쪽은 학습 쪽을 많이 원하시고 자폐 쪽은 어.. 조음 유순해 지면서 인간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적이 되고 서로가 하나가 돼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폐 쪽은 원하시는데 참 그 방법들이 참 어렵죠. 그렇게 해나가기가.

연구자 : 활동보조서비스 신청할 때 욕구조사는 성인의 자립생활 위주로 작성되어 있잖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등·하교 서비스 등 만 있을 뿐, 엄밀히 말하면 욕구조사에는 학습보조가 포함되어 있지는 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A :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동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동 지원을 하면은 시간으로 주려고 해요. 유류비를 안 주고 그런데 그거는 부정수급이예요. 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래서 저희 쪽은 그래서 이동 지원을 거의 잘랐어요.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보내드렸어요. 이런 경우 문제가 활보인과 이용자가 짜고 하는 거. 그러면 기관에서는 몰라. 그렇게 얘기를 교육을 했는데도 시간으로 주는

예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요번에 우리 ○○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게 이동 지원. 저희 지금 차를 샀어요. 이동 지원에 투입을 시키려고. 활동보조 이동 지원에 대한 욕구를 어..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되면 진짜 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보이자. 그래서 3개 기관이 서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서 일단 우리 쪽 돈으로 차를 샀고, 어.. 다른 2곳의 기관에서는 일단 한 달을 시범 운행을 해보자. 자기네 쪽에서 5명씩을 보내주겠다. 5명씩을 보내 줄 테니까, 5명씩이면 저희까지 하면 천 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 1대가 운영할 수 있는 유지비가 생성이 되는지. 아니면 적자가 나는지.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도 안남어. 왜냐하면 활동보조 중개를 하면 중개료로 2천원을 띄는데 차량유지비로 그것을 다시 재투입이 되다보니까 대신 뭐가 좋으냐. 우리 선생님들이 안정된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기관으로 봐서는 힘든 일이예요. 일만 힘들지 어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없죠. 그런데도 왜 하려고 하느냐. 이건 활동보조의 어떤 원칙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원칙을 세워나가려면 누군가가 이 시도를 해야 해요. 그래서 각 시도들도 이동지원 특히 어린아이들도 학교나 장애인학교를 갈 때 대개 보면 엄마 부모가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활동보조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걸 시간으로 줘버린단 말이야.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거 활동보조인들이 다 써야 해요. 이게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안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게 유상운송특약이라는게 있어요. 운송특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것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보험료만 150만원 이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지. 선생님들이 못하지. 그러니까 이건 기관에서 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런 활동보조가 정말 자리잡아나가는. 학습보조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해석해요. 그것을 꼭 과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 미진한 부분을 누군가의 도움을 통..통해서 그 아이들이 만약에 학원을 가더라도 그 아이에게 맞춰서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또 그 아이한테 얼마를 받고 공부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안 된다고 한다는 건 밥을 놓고 밥숟가락 다 뺏어 놓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수저, 반찬 이런 것들을 다 주고 나서 선택권을 줘야해. 그랬을 때 활동보조에서 학습보조를 안할 수도 있어요. 만일 그런 것들이 다 된다면. 하지만 그런 여건들이 안됐을 때 어머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또 그 아이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래도 케어를 해준 사람. 또 케어와 병행을 해가지고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매일 그 친구를 보면서 얼굴을 맞댄 사람에게 그 친구는 열게 되어있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사람을

못 사귀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부정수급도 아니고 어.. 거기에 맞지 않는 일도 아닌 맞는 일이라고 봐요 나는. 단지 거기에 지침서에 쓰여 있지 않을 뿐이지 그럼 지침서에 쓰여 있지 않다고 모든 것을 다 안 해야 해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활동보조인이나 코디네이터 또 기관을 통해가지고 발전적이고 더 폭 넓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활동보조를 더 원칙적이고 더 세분화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사람들은 지침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법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관계되면 그래. 가르쳐줬어. 그런데 시간 외로 시간을 받는 다면 시간 외. 가르쳐준 시간 외로 시간을 받는다면 그건 부정수급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법적으로도 걸려. 하지만 한 시간을 가르쳐주고 한 시간을 찍었어. 그리고 나머지 아이 밥 먹는 거 도와주고 목욕 시켜주고 잠깐 나가서 운동 시켜주고 해가지고 또 한 시간을 찍었어. 그거는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엄마가 옆에서 숙제를 도와주는 거는 법에 안 걸리고 활동보조 선생님이 옆에서 숙제를 하는 거는 걸리면은 그게 어느 나라 법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활동보조 하시는 분들의 그.. 인식이 바뀌어야 해. 좀 진취적이고 좀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야지 어떤 틀에 자꾸만 가치다 보면 활동보조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쁜 것들은 고쳐나가야 된다. 이동지원이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 성.. 성희롱에 대한 문제 또 요양보호와 겹치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방향을 전환해서 진취적으로 또 활동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활동보조는 원칙이 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구자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특수교육	학 번	20088009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 김아미 한문 : 金雅美 영문 : a-mi kim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89번지 301호				
연락처	E-MAIL : 841027ami@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중도장애학생의 활동보조서비스 현황 영어 : Present condition about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Students with Severe Disabled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10 년 12 월 17 일

저작자 : 김 아 미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